



서울대미주동창회보

www.snuaa.org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A

230호 2013년 6월

서울대 미주 동창회
1225 W.190th St.#465
Gardena CA.90248 USA
Tel 310-515-7888 Fax 310-515-7883
e-Mail : snuausa@yahoo.com



제22차 평의원 회의 대성황리에 마쳐

차차기 제13대 동창회장에게 손재욱 동문 선출
사업보고 비롯 26개항에 대한 심의·추인·인준

지난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워싱턴 DC의 The Westin Tysons Corner 인터콘티넨탈에서 열린 제22차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가 110여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가한 대성황 속에 화려했게 마쳤다.
특히 박윤수 초대 미주 동창회장을 비롯해서 이복흥(6대), 이영복(8대), 송승열(10대) 전 회장을 비롯해 미주 동창회장을 역임한 분이 4명이 참가해 활기를 더해 주었다. <면접 참조>

이번 행사는 21일 오후 4시부터 Smithsonian American Arts Museum에 설치된 백남준 Video Art1관람에 이어 오후 7시 우대관에서 전야제를 시작으로 개막했다.
우대관의 전야제에서는 성주경 사무총장 사료로 모로 임광수 총동창회장과 김은종 미주 동창회장, 오인환 차기회장의 환영사, 각 지역 동창회 동문과 인사와 함께 김은종 회장이 수여 공로패 시상식이 있었다. <17면 참조>

22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본회의에서는 성주경 사무총장의 사회로 상임 보고와 함께 진행됐다. 이 회의에서는 김은종 회장의 주재로 인준과 사업계획 및 내용 보고를 비롯한 26개항에 대한 심의와 검토, 계획, 추진, 인준 등에 대한 회의가 오후와 오후로 나뉘어 각각 이뤄졌다.
이날 본 회의에서는 제22차 평의원 회의 최대 하이라이트로 동창회 차차기 제13대 미주 동창회

장 선출을 위한 선거가 있었다. 이 선거에서는 치열한 경쟁 끝에 손재욱(수의대 77·사건 2번) 동문이 불과 단 2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윤상래(수의대 62)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면접 참조>
이 선거는 이미 올 초부터 미주 동문들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른 바 있다. 본역 투표에 앞서 가진 찬조 발인부터 치열한 집전을 예상했기나와 이어 벌어진 두 후보의 경진발표는 마치 지난해 고교의 대선장면을 연상케 해주는 것이기에 흥분했다.
본회의가 끝난 뒤 제11대에서 제12대 오인환 동창회장 체제로 이뤄지는 동창회기 이양식이 거행됐다. 오인환 회장은 차기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제22차 평의원 회의에 참석한 동문들이 모여 열린 결의를 다지고 있다.

하고 임원진에 대해 소개했다.
오후 8시부터는 임광수 총동창회장이 주재하는 환영단원이 이따금씩, 임광수 회장은 미주 동창회에 대해 치려와 함께 봉사하고 헌신해온 동문들에 대해 공로패를 수여했다. <면접 참조>
이날 브라스 하버드 전 주한 미국대사 차 모병회 회장의 한반도 평화의 미래에 대한 강연과 함께 질의 응답으로 인기를 끌었다.
<2면에 계속·면접주관>

이달의 초대석
이종형 교수...15면

NON-PROFIT
US POSTAGE PAID
GARDENA, CA
PERMIT No. 177

제11대 김은종 미주 동창회장 이임사

“임원·편집위원들의 헌신적 노력과 협조로 그 임무를 다해...”

역사는 과거를 모토로 하여 현재와 미래로 관통합니다.
우리의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학교라는 모교가 과거 청사진을 일깨워준 교양, 품성, 양식, 학식의 뜻을 입고, 대평양 건너 이 북미주 땅에서 오늘을 살고 있으며, 또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설계하며 열정의 삶이 될 것입니다.
2년 전 부록항 본인이 제11대 미주 동창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가슴에 새겼던 문구가 ‘제주부주(敬周府主)’였습니다.
‘물은배를 띄울 수도 없고, 뒤집을 수도 없다’는 뜻의 제주부주(敬周府主)!!!

지난 2년의 세월을 돌이켜 보면, 많은 분들의 노고와 헌신으로 미주 동창회라는 커다란 배가 거센 파도를 헤쳐가 멋진 항해를 했습니다.
지속되며 회복할 줄 모르는 경제적 침체에도 불구하고, 불심장인으로 도우신 많은 동문 여러분들과 특히, 헌신봉사한 제11대 임원 여러분들 그리고 편집위원들의 헌신적 노력과 협조였기에 아마 이 거센 파도를 헤쳐지 못하고 순탄한 항해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계 유수대학들이 발전하는 이



면제는 수많은 동문들의 참여와 헌신에 대단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본인의 모습에 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과거 청사진의 모교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나아가 명문대학 출신의 Identity를 현재와 해서 이 융성한 미래를 이루고자 하는 강령

대가 형성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미주 동문들께서도 더 활기찬 관심과 기여로 동창회에 적극 참여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모교발전에도 적극적인 기여와 동참을 생각 바랍니다.

이제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11대 회장직을 끝내고 평의원으로 돌아옵니다.
동창회장이라는 직분은 그 권한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많은 임무를 수행하고 목욕이 추진 해나가는 자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제11대 임원들과 임원위원들의 헌신적 노력과 협조였기에 그 임무를 다 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함께 일하신 모든 11대 임원진들과 편집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면에 계속>

‘미주 동창회보’는 **동문들의 동창회비**(구독료 포함 1년 75달러)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회기가 7월 1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다음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952 Gallows Rd. Suite 206 Vienna VA 22182



제22차 평의원 회의 이도 저도 <6월 22일>

본회의와 저녁 만찬

▶개회= 오전 9시부터 성주경 사무총장의 사회로 연회장에서 본회의가 시작됐다.

성 사무총장은 회에서 앞서서 각 지역 동창회에서 참가한 동문들 위해 평의원 수를 파악했다. 성 사무총장은 총 98명의 평의원과 평의원 자격을 위임받은 동문들이 참가했음을 확인하고 "총 13명 중 3분의 2를 넘었으므로 평의원 회의를 위한 정족수가 성원됐음"을 알렸다.

▶환영사= 곧 22차 평의원 회의를 위한 김준경 회장의 환영사와 임광수 동창회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의례 축축= 이어 성 사무총장이 첫 회의를 남극과 북극까지 총무국장이 사임보고를 했다.

▶사임보고= 제1대 회장단 사임보고의 차례로 이상은 다음과 같다.

2012년 7월 8일부터 15일까지

총 136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Alaska Cruise를 통한 제21차 평의원 회의를 개최했다.

제22차 평의원 회의를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2년 9월 22일 LA의 J.J. Grand Hotel에서 제2차 Brain Network Workshop을 실시했다. 이날 하용을 교수, 고병철 명예교수, 이재진 명예교수, 박노희 학생 등이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Brain Network Workshop 및 주 동창회 기금 모금을 위한 skardell rolling hills C.C.에서 가진 질의 응답 시간 22일 220달러의 기금이 거수됐었다.

보다 나은 회비를 위해 각 계층의 동문들에게 다가가자 이번 내용은 보다 충실하고 다양한 내용, 각 지역 중심의 다양한

↑미주 평의원 회의 본 회의장 모습이다.



↑김준경 미주 동창회장이 연인도 회의의 회의를 진행중이다.

동정소식 강화, 광고수입 증대 방안 등에 대해 논평했다.

제정수지 개선발안으로 이벤트형 사업의 하나로 골프투어를 개최하려고 광고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했다. 일반 후한자 확대를 위해 이달의 초대제 등을 확정했다. 또한 4명의 종신 이사를 확보했다.

동창장의 결속강화를 위해 모교 기념일 동반대회, 각 지부(단과대학별 포럼) 행사 참석, 동창회보 CD발행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장학사업으로는 모교 국제협력부와 협조로 U. Penn에서 2012년 여름학기에 수학한 학생을 선정(인문대 동양사학과 3명 이외)해 지난 해 7월에 장학금(학비 6천300달러)을 지급했다.

Brain Network Workshop과 기금 모금을 위한 Golf대회에 기대

←성주경 사무총장과 백옥자 총무국장이 각각 보고 중이다.

"현재 시세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는 150여 명의 동문들이 있습니다. 숫자는 대도시와 비해 20년 전에는 많지 않았지만 참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취임단주 동창회는 무로로 봉사 활동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커뮤니티를 위한 봉사활동 외에도 지난 2010년부터 자선 음악회를 열고 있다. 자선 음악회에서의 수익금은 모두 후원활동에 사용되는 것은 물론이다.

김 회장은 "아직은 도대적이 이 충분치 못해 이러한 봉사활동이 모두가 동문들의 불사신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좀 더 기회가 되면 미주 동창회와 연계를 더 많이 가지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단주>>



↑왼쪽부터 이상강 동문, 배귀영 전 회장, 이상강 동문 부인 김경숙 동문, 구명순 회장, 구 회장의 부인

"바로 이 사람이 회비를 내지 않고 동창회보를 받아보는 사람이요!"

지난 6월 21일 오전 미주 평의원 회의가 시작된 호텔 로비에서 하용을의 이상강(의대 70) 동문 부부(부인 김경숙 70)를 만나 인사를 나누는 중 동창회비 이야기가 나왔다.

필자가 "미주 동창회비를 내는 동문 수가 매년 500명 중 불과 10-15% 정도"라고 하자 이 동문은 살짝 놀라며 "그런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살고 있는 주위에서도 회비를 내지 않고 동창회보를 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모두 그런 사람들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김은 지역 동문 몇 명이 가까이 다가오자 이 동문은 그 자리에

한 명을 가리키면서 "바로 이 사람이 회비를 내지 않고 동창회보를 받아보는 사람이요!"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이 동문이 하용을 전직으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한 끝에 다른 사람들이 저소를 지으며 모두가 시선을 집중할 정도로 당사자의 얼굴색이 잠시 빨개졌다.

그러자 그는 "평의원 회비가 아니라 올라가면 회비 회를 내셨다고 그 말에 별명처럼 분위기를 모면했다."

이 동문은 그런 사실을 알았으니 같은 주변에 회비를 내지 않는 동문은 모조리 찾아내 죽여버리라고 내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취임단주>>

대회는 성 사무총장이 자서에게 부원선임을 해주었다. 성 사무총장은 개인사정으로 참가하지 못한 동창회장 지인 주 권원화회장을 대신해서 지 위임장을 '권원화'를 남극하고 취직을 대신 설명했다.

또한 역시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강요제 재무국장을 대리해서 재무, 모교발전기금, 관악위원회, 종신이사회비 등에 대한 보고를 해주었다.

모교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미 주 동창회 송승원 전 회장이 자서에게 부원선임을 해주었다.

이어 백옥자 총무국장이 고국 동창회비 및 미주 동창회보 보충금에 대한 보고를 해주었다.

백원일 감사는 이같은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백원일 감사는 지난해에 신의달리 탐구한 수평의 필요로 사설로 단상에 오르면서 대담적으로 감사하고 하면 무수한 사람들이 한 중의 하나라니 그동안 한 커다란 전 열이어서 지금 그 & Joke에 화를 쓴 곳 상의 도나도도 불만이었다. 약한 딱딱했던 회비정비불기기가 Joke로 한 번 부러워지는 모습이였다.

박 감사는 또 "미주 동창회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도 10년 동문이나 감사를 한 바에야사라니 동창회 동창회사 한 건도 걸리지 않아 약간 안다"고 말했다.

▶안건 투표= 이어 김준경 회장이 주어진 안건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었다.

김준경 회장은 먼저 자기 회장을 위해 위임될 Nomination

Committee구성에 대한 투표로 진행됐다. Nomination Committee는 전 회장, 현 회장, 차기 회장이 당연직으로 계속하며 나머지 4명으로 구성된다.

김준경 회장은 4명에 대해 각 지에서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자 사기와 동창회비에는 송승원 전 회장이 이송자 동문을 추천해 당선임으로 선정됐다.

필라델피아에서는 사임된 회 취원화장이 조지 전 회장을 대신로 고사하면서 "이제 김준경(원) 때문에 그동안 나를

성으로 오인한 동문이 있었고 나는 분명히 남상"이라고 주먹을 불끈(?) 쥐며 강하게 눈

길을 끌었다.

필라델피아 고병은 동문은 중부 텍사스의 이명재 전 회장을 추천했다.

이에 이명재 전 회장은 적극적으로 고사했으나 또다른 동문들이 더 추천하고 나서서 결국 패배(7)로 끝났다.

또한 뉴욕에서는 김준경 회장이 추천한 주동회 이사장을 추천해 선임됐으며 워싱턴 지역에서는 김주용 회장이 추천한 역시 선임됐다.

김준경 회장은 "최근 테세지주에서 가임 선정을 해온 일이 있으나 다음으로 미워진대 대해 아쉽지 생각한다"고 말

하고 "미주 지역 동창회 재조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정평화를 위해 좀더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차기 회장단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연계 계속>>



첫 참가한 워싱턴주 동창회 김우용 회장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참가할겁니다"

"미주 동창회에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동문들과 함께 참석할 것입니다."

워싱턴주에서는 처음으로 미주 평의원 회의에 참가한 김우용(유대 64) 회장은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미주 평의원 회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직 잘 몰랐을 때는 혼자서 자서히 관찰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행사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등 본회의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관람, 유류기사 장려, 장로 유망자 클리닉 감상, 친목활동 등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우용 회장은 "아직은 도대적이 이 충분치 못해 이러한 봉사활동이 모두가 동문들의 불사신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좀 더 기회가 되면 미주 동창회와 연계를 더 많이 가지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단주>>



<면에서 계속>

▶김은중 회장 임무는 김은중 회장은 “어느 집 며느리가 입신을 하지 못해 남편을 잃는 드물게 일찍 시아버지가 입신을 했다더라”는 joke를 곁들이며 임무를 남겼다.

김은중 회장은 “역사는 과거를 모래로 해서 현재와 미래로 분류하는 것”이라며 “우리 서울대인들은 과거 진보들이 보여준 학식과 양식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동창회기 인계는 김은중 회장은 임무를 마친 뒤 제12대 오인환 회장에 미주 동창회기를 인계하는 ‘동창회기 인계식’을 가졌다.

▶제12대 회장 취임식- 제12대 오인환 미주 동창회장은 ‘Group Intelligence(집단지성)’을 타이틀로 쓴 취임사를 낭독했다. (이 취임사는 미주 동창회보 7월호에 전문을 게재할 계획이다.)

▶차기차 회장 인사- 차기차 회장 제13대 최창호로 당선된 손재욱 회장은 당선 인사에서 나서서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미주 동창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데 대해

↑토마스 허버드 대사가 Key Note 스피커로 강연 중이다.

해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손재욱 차기차 동창회장은 이어 “이미 정해져서 말인 바와 같이 실적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모든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질서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며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제12대 임원선출= 오인환 제12대 회장은 “제12대 미주 동창회기 더욱 알찬 동창회기 되도록 배려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이어 필라델피아 동창회 주기를 최창호에게 동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으며 현재 제12대의 강사를 맡은 박병일(8대 68) 강사에게도 앞으로 강사직을 2년 더 맡아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제12대 사업계획 및 예산= 오인환 회장은 제12대 미주 동창회의 사업과 행사,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때 박병일 운영 사업계획은 재정지원 연구팀 구성, 지역 동창회간 Networking, 지역 회장단 회의, 지역학회 참여 행사, 관악대 동창, 미주 방문



모교 대학원 동창회상 최중고 명예교수

“동승동 Home Coming Day도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ome Coming day를 관악 캠퍼스에선 할 게 아니라 과거의 흔적이 살아 있는 동승동 캠퍼스에서도 같이 하는 것도 가치가 크다고 봅니다. 과거 동승동 캠퍼스 세대들은 이같은 뜻에 거의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요.”

제22차 미주 평의원 회의에서 서울 동창회상 인사로 참여한 최중고(법대 66·명예교수) 대학원 동창회장의 말이다.

서울대가 지난 캠퍼스도 옮긴 것은 1975년으로 그 전 세대의 동승동 캠퍼스에 훨씬 더 향수를 느끼며 애착이 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옛 서울대인의 상징이었던

동승동 기리가 지금도 완결된 유물이기도 보면 것이 안타깝습니다. 유익하게 남은 것은 옛 부총장실이었던 건물만 남아 있는데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발전 ‘역사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재단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따라 최중고 회장은 10월 12일 가칭 ‘서울대인의 옛 캠퍼스 Home Coming Day’ 행사를 준비 중이다.

동승동 졸업생들을 모아서 10월 12일 과거 동승동 시절의 강당과 그 일대를 돌아보는 시간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악역 전 동승동의 강당에 관악대 동창회 학

“원종고 교수가 동료들에게 ‘동승동 Home Coming Day’와 미주 지역에서도 대학원 동창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장비의 강연과 축약된 등에 대해 협의 중이다. 이에 조완규 전 총장과 이장부 전 총장계시도 모두 동채비 동조하고 있다고 한다.

그 일대를 돌아보는 옛 캠퍼스 부이에는 구름다리뿐 아니라 법대와 의대·미대를 지나 시계대를 조망해보며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다.

또한 1956년부터 지금까지 영업준 학림다방에 모여 과거를 회상하며 유정한 동국 고려대 23대 ‘역사’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재회를 세우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 1929년 심지어 서울대의 성상수가 되어 지금까지 유익하게 동승동을 지키고 있는 마르세이로 캠퍼스 시 필라델피아 정지하고 재회

최 회장은 “타이틀로 ‘타이틀’을 붙여야 한다. 프랑크스 세상에 빛나는 동승동 시절의 동창회상을 부르고 있다. 이름을 붙인다.

최 회장은 고교의 대학원 동창회 뿐만 아니라 미주 지역에서도 대학원 동창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를 기회로 이를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다.***<면접주>

무엇을 할까? 물론 아주 했다. 특히 방송도 물론 아주 했다. 한복을 입고 동창회 주관으로 미주 전사를 한 후에 만났다.

이 만찬에서는 식사와 함께 춤을 춘다. 미주이던 멋진 클라시컬을 감상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소프라노 Katherine Unha Keem의 Ombre legerre를 비롯해서 Cello 김종민 The lygne(백조), Lied 오페라 Wort의 연주, Lieder 악수 잔치를 만났다.

특히 Violinist Amy Oh의 La Capricieuse와 Zigeunerweisen 연주는 모두가 너무 감동한 나머지 기립박수로 열광을 요청하는 대환사를 만났다. 올해 13세의 Amy Oh는 전배향(올해 75) 동창의 딸로 지난 2008년 ‘Penbody’s Patt Recital Competition’에서 우승한 재현이다.

또한 이날 토마스 허버드(Thomas C. Hubbard) 주 찬반 미주 대사가 Key Note Speaker로 초청된 만찬을 함께 했다.

허버드 전 대사는 엘리자 주 출신으로 지난 1996-2000년 주 평의원 대사를 거쳐 2001-2004년 주 찬반 대사를 지냈다. 그는 만반도 정제와 착한을 주 재단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동승동으로 만찬을 함께 했다. 그는 만반도 정제와 착한을 주 재단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만반도 정제와 착한을 주 재단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 만찬에서는 동승동 회장이 주관하는 강로와 수석장이 주관하는 관악회 강로를 같이 했다.***<면접주>



제22차 평의원 회의의 이모 저모<6월 23일>

골프대회 및 시내 관광

제22차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의 경기 일정을 끝낸 동창



워싱턴 DC 지역의 요즈음 기온이 90도를 넘어서는 등 이미 한여름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11월인데 다시 만난 동창들은 11월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을 만끽했다.

또한 가족을 동반한 여섯 동창들은 이번 일주일 국립모지 등의 시내 관광에 나섰다. 스미스슨 박물관은 15개의 서로 다른 박물관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를 자랑하는 박물관이다.

1846년 영국의 과학자 James Smith의 유산으로 설립됐는데 전시물이 무려 1억4천만개에 이른다고 한다. 이 박물관은 무료 입장으로 더욱 인기다.***

워싱턴 DC 지역의 요즈음 기온이 90도를 넘어서는 등 이미 한여름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11월인데 다시 만난 동창들은 11월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을 만끽했다.

또한 가족을 동반한 여섯 동창들은 이번 일주일 국립모지 등의 시내 관광에 나섰다. 스미스슨 박물관은 15개의 서로 다른 박물관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를 자랑하는 박물관이다.

1846년 영국의 과학자 James Smith의 유산으로 설립됐는데 전시물이 무려 1억4천만개에 이른다고 한다. 이 박물관은 무료 입장으로 더욱 인기다.***



허병열 (사대 42) 이사장

뉴욕 한국학교 개교 40주년 축하 행사

“전세계 한국학교 연합대회 열 것” 뉴욕한국학교 개교 40주년 “평화의 대박소리”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 진행

허병열 (사대 42) 동문이 설립한 이사가장으로 재직중인 뉴욕 한국학교가 지난 5월 11일 브롱크스 소재 인애 카바테에서 개교

40주년 축하행사를 열고 이 행사를 통해 전 세계 한국학교의 연합 대모임이 될 것을 다짐했다.

뉴욕 한국학교는 이날 또 다른 40주년을 향한 ‘평화의 대박소리 (세 출발)’ 공연을 시작으로 ‘40주년 열성’과 특별연극 ‘심청, 뉴욕에 오다’를 연극할 예정, 어린이 노래, 태권도 시

1 뉴욕 한국학교 학생 및 교사들이 개교 40주년 특별 연극 ‘심청, 뉴욕에 오다’(극본& 연출 허병열)를 공연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허병열 이사장

범, 뉴욕 한국학교 국악반 및 전통무용반의 ‘동! 동동!! 뉴욕 한국학교 아리랑’ 등을 무대에 올려 ‘개교 40주년’을 축하했다. 뉴욕 총영사관 한국 교육원 이사장은 이날 “뉴욕 한국학교의 역사는 개별 한국학교의 역사와 다르다. 그리고 전세계 한



한국교 운동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뉴욕 한국학교에서 시작된 한국학교 운동이 많은 씨앗을 뿌려 현재 미국지역에 1천여 개, 전 세계적으로 23여 개에 이르는 성과를 거뒀다”고 역설했다.

제미 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 회원회 회장으로 “뉴욕 한국학교는 미주지역 한국학교의 이정표”라며 “특히 허병열 이사장은 제미 한국학교 협의회를 창설을 주도했고 그 뿐만 아니라 동

북부 협의회 초대회장으로 뉴욕·뉴저지·캐나다 한국학교들의 설립과 발전에 주춧돌을 놓았다”고 밝혔다.

뉴욕 한국학교는 지난 1973년 5월 5일 브롱크스 리버데일 소재 J.F.K 고등학교에서 개교, 올해로 40주년을 맞았다.

개교 당시 교사는 허병열 문물을 비롯해 김재은·최혜영·전수만·석수산·장진일·오형주 등 7명으로 207명에서 2013년의 학생들을 가르쳤다. 창설자는 김홍은·정환진·임호택씨다.

허병열 설립자 겸 이사장은 “40주년을 맞은 것은 본교 가족들의 굳은 신념과 꾸준한 노력,

그리고 지역사회의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후 “현재의 미국을 넘어 온 세계 한국학교 교육의 실험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일 행사는 제미 한국학교 협의회와 뉴욕 총영사관 한국교육원, 뉴욕 한국학교 협의회, 뉴욕총영사관, 뉴욕대학으로 뉴욕 동맹회, 대뉴욕지구 경기교과 동맹회, 서울교육대학교 뉴욕 동맹회 등이 후원했다. 뉴욕한국학교 연합회는 전화 917-470-4567*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 샌프란시스코 방문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사진)이 지난 5월 9-10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을 방문했다. 최문기 장관은 5월 9일 ‘SV 진을 국내 업계 및 지원 기관의 정책 간담회’를 시작으로 10일 ‘SV IT 창업 지원센터 캐슬릭’에 참가하는 등 세 정부의 핵심정책 기조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현지에서 나와 있는 우리 기업들을 격려하고 정책 비전을 공유할 예정으로 온 것

이다. 최문기 장관은 경복고를 나와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밟았다. 최 장관은 이후 카이스트 경영대학과 고추를 비롯해 제1과 과학기술 출연기관장 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최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 지난 4월 처음 조직된 미래창조과학부의 장관으로 임명됐다.***

임춘수 전문의

샌디에이고 우리성모병원 진료팀에 합류

샌디에이고 ‘우리성모병원 (원장 박노홍)’ 진료팀에 동물 임춘수 신장내과 전문의가 합류할 예정이다. 임춘수 전문의는 모교 의대를 졸업한 뒤 디트로이트 메모리얼 병원, 샌디에이고 병원 등에서 신장내과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다.

그리고 라파엘라 클리닉에서 내과를 수료했으며 미시간주에서 34년 동안 신장내과 개

원의로 활동한 이 분야의 베테랑으로 인정받고 있다.

임춘수 전문의는 우리성모병원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수면장애, 저지혈증 등 신장계 질환과 내과 진단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임 전문의는 현재 이 병원에서 복외장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이 병원은 내과 전문의 6명, 내과 간호사 (858)277-7111로 하신다.***

LA한인침례교회 개척 교 김동명 목사 장례예배

“복을 통해 세상인과 실천하신 분” 교인 등 500여명 참석해 “언젠가 다시 만나뵈겠다” 한 한국교회 큰 스승 추모

교 김동명 목사(90) 장례예배가 지난 4월 30일(토) 오전 10시 40분인 개척했던 로스앤젤레스 한인침례교회(당회장 박성근)에서 교계 지도자, 교인 등 관객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성근 목사 장례로 열렸다.

이날의 장례예배는 박 엘리트 목사(남침례회 국제전교구 총재), 진유철 목사(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회장)의 조사, 생전의 모습 동영상 상영, 추모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교에 나선 제프 로그 박사(글든 게이트신학교 총장)은 “김동명牧사는 미주 한인교회와 교계 발전에 노력하셨다”며 “복을 통해 세상이 변화된 것을 믿고 실천하셨던 분이였다”고 회고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굳게 믿었던 분이기에 천국에 계시리라 확신했다”고 덧붙였다.

진 유철 목사는 “한 영혼을 무척 사랑하셨던 목사님이였다”면서 “목사님이 평소에도 말하셨던 주님께 멋진 마음으로 살아갔었다”고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바인 침례교회 한종수 담임목사는 “신학성 사절 만났던 김 목사님의 크신 사랑을 평생 잊지 못하겠다”며 “목사님이 신교하시던 모습과 목사님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추모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침례교회 장로회 안수집사(59)는 “김 목사님은 저희 결혼식 주례를 서신 분이였다”고 말했다.

김동명 목사는 1922년 경북 청진에서 출생, 모교 공대를 졸업하고 도교 김대우 목회자로 활동하다가 1949년 개척교회로 개종했다.

김동명 목사는 1922년 경북 청진에서 출생, 모교 공대를 졸업하고 도교 김대우 목회자로 활동하다가 1949년 개척교회로 개종했다. (1968년 소천)과 결혼한 뒤 1957



1 교 김동명 목사(90)가 개척했던 로스앤젤레스 한인침례교회에서 김동명 목사에 대한 장례예배가 지난 4월 30일 교계 지도자, 교인 등 관객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성근 목사 장례로 열렸다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를 찾았던 관객들이 많이 들리거렸다”고 말했다.

박성근 목사는 장례예배 장례를 끝낸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언젠가 김 목사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며 “그 때까지 김 목사님이 우리에게 남긴 사랑의 유산을 후대에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장례 예배를 통해 모금된 조의금은 “김동명 장례재단” (가칭) 설립 기금으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장례예배는 이날 오후 2시 라미온 포리스트 론 메모리얼 파크에서 진행될 하안례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김동명 목사는 1922년 경북 청진에서 출생, 모교 공대를 졸업하고 도교 김대우 목회자로 활동하다가 1949년 개척교회로 개종했다. (1968년 소천)과 결혼한 뒤 1957

년 로스앤젤레스 한인침례교회를 개척했다.

1981년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장으로 취임하고 1989년 은퇴 후 일본 오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선교에 주력하며 ‘용서받은 땅’을 출간했다.

교 김 목사는 “1978년 나창훈 목사”를 통해 남침례회 “나 창훈의 회고록”을 펴냈다. “나 창훈의 회고록”은 창훈이 남침례회로 개종한 뒤의 주교이다. 그의 회고록은 “나 창훈의 회고록”이라고 밝혔다.

대선 세무사 김대우 목사는 “김 목사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자 큰 스승이었다”면서 “한국교회는 영적 거목인 큰 나무를 잃었다”고 크게 애도를 표했다.

대선 세무사 김대우 목사는 “김 목사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자 큰 스승이었다”면서 “한국교회는 영적 거목인 큰 나무를 잃었다”고 크게 애도를 표했다.

대선 세무사 김대우 목사는 “김 목사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자 큰 스승이었다”면서 “한국교회는 영적 거목인 큰 나무를 잃었다”고 크게 애도를 표했다.



최용완 은설위원 시집 출판기념회

시집 '무등산, 가을호랑이' 출판기념회에 공동 동창회를 비롯 남가주 동창회 동문들 모여 축하

시인·수필가이자 미주 동창회 은설위원인 최용완(공대 57) 동문은 시집 '무등산, 가을호랑이' (푸른 상상 간행)를 펴내고 지난 6월 15일 LA '작가의 집'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남가주 동창회(회장 김상환) 후원으로 열린 이날 출판기념회는 동문들을 비롯한 2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가주 공동 동창회 양인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남가주 동창회의 김상환(문리대 66) 회장은 "내가 아는 시

인 최용완"이라는 인사말에서 "최용완 작가는 대학 선배로 인제나 너무 작문하시고 청각하시어 도무지 조그마한 실수도 없는 분으로 이러한 선배의 성격과 사고(思考)가 작품에서도 뚜렷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주 한국문인협회 부회장인 최용완은 축하사를 통해 "최용완 작가는 동향에 초등학교부터 고전시대 판계로 이렇게 훌륭한 분이 왜 소식이부터 작품활동 하시지 않았는지 너무 아까울 정도"라고 말했다.

"미주 시학"의 배정호 발행인은 기념사를 통해 "집을 지으면 좋은 리에 풍경을 비롯 주변 환경도 좋아야 좋은 건



축이 나오는 것처럼 문학작품도 좋은 도향에 좋은 환경이라야 훌륭한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건국과정이나 문학 작품 활동은 아주 비슷하다"며 "최용완 작가는 천공(건축)에 문학을 집속시켰으니 더 좋은 작품

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에 나선 최용완 동문은 "시를 쓰거나 수필을 써오면서 한편으로는 항상 생각나는 것이 바로 손자 손녀들이었는데 이들이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바로



↑ 최용완 동문의 신간 '무등산, 가을호랑이'의 표지
← 최용완 위원회 이남 출판기념회에는 공동 동창회의 많은 동문들을 비롯해 남가주 동창회의 동문들이 함께 참여해 축하를 해주었다.

←미주 한국 문인협회에서 최용완 위원에게 축하패를 증정했다. 최용완 위원(이 부인과 함께)이 패를 받아 들고 있다.

노래하고 춤을 추는 것이었다"며 "사람은 모두가 말을 하기 전에 하는 것이 바로 노래와 춤이라는 사실을 세상사람들 깨닫지 못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고전문학의 한 권을 이루고 있는 동편제와 서편제였다"고 말했다.

"따라서 노래가 글문학의 시가 되고 시가가 되어 오늘날의 우리 문학작품이 되어가듯 우리들이 서로 감동하고 서로의 사랑을 느끼는 과정을 모두가 같이 함께 공유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최용완은 또 "한민족의 우수성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이원영 편집위원 한의학 박사 취득

'한방 현대적 해석'으로 '아메리칸 리버티 유니버시티(ALU)'에서 학위 받아

남가주의 미주 중앙일보에서 은설위원으로 재직중이며 미주 동창회보 편집위원이기도 한 이원영 동문(신지)이 지난 6월 2일 '아메리칸 리버티 유니버시티(ALU)'에서 한의학으로 박사 학위(Ph.D)를 취득했다.

그동안 미주 중앙일보의 오페라인 '전통 예술'을 팀이 주도한 가운데 동해 한의학의 대중화를 위해 꾸준하게 노력해온 이원영 위원은 '한의학 이론의 현대적 해석과 병증 진단의 상관관계'라는 주제로 박사 학위 논문을 썼다.

도교에서 정치학과를 졸업한 이원영 위원은 도미 후 꾸준히 한학을 가져온 자연치유 분야 연구자로서 그동안 삼과 한의대에서 공부했으며 이 대학 졸업과 함께 캘리포니아 합스킨스 도서관의 연례를 취득하기도 했다.

이 위원은 그동안 중앙일보 지면을 통해 '눈이 한방' '전통 예술' 등을 집필하며



전인치유 및 심신건강의 중요성을 대중들이 알기 쉽도록 집필하고 알리는 데 힘써 왔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한의학은 단순한 메디컬 이론이 아니라 인체는 복은 영성과 사회 운동 원리를 포괄하는 원리"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 "글과 강연 등을 통해 올바른 심신건강법을 알리는 데 역량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이에 대한 글을 동창회보에 게재한 바도 있다. ◆◆◆



서울대병원 뉴저지서 이용 설명회

뉴저지 한인무역협회(OKTA)와 제휴로, 단체협약 이용 설명회

서울대병원 뉴욕 사무소가 뉴저지 한인무역협회(회장 박

명근, OKTA NJ)와 기업·재무 건강진단 프로그램 이용 설명회를 지난 6월 3일 포트리 소재 코트 비즈니스 센터에서 개최했다.

윤예지 동문 에퍼파니 성가대 지휘

윤예지 동문이 지난 6월 8일 워싱턴 DC 조지타운에 소재한 에퍼파니 성당에서 열린 정기 음악회를 지휘했다.

합창단은 세르티모의 'Veni Jesus amor mi' 로이스 랍비 콧대의 'Panis Angelicus' 모자르트의 'Ave verum'과 'Laudate Dominum', 스티븐스의 'Without love, I am

↑ 서울대학교 병원 뉴욕사무소의 정현진 문예실장이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다.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음악회에 따른 할인 프로그램 및 건강진단 패키지 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

nothing' 루터의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등과 '참 좋으신 주님' (김기영) '나를 믿으소서' (최덕진) '그리 밭 안에 살만' (백지) 등의 클래식 성가곡을 연가와 라틴어, 한국어로 불렀다. 성가대 윤예지 동문은 성회에도, 서울대대 동문회원을 거쳐 DC 가톨릭 대학에서 박사 과정 중이다. ◆◆◆



신창민 박사 위상서론 통일 강연회

남북통일은 한국 경제의 '엑스' 통일인 대박이다'

'통일은 대박이다'의 저자 신창민 교수(합대 60) 초청 통일 강연회가 지난 5월 23일 위상서론 강연회였다.

이날 위상서론 강연회에 참석한 통일 강연회에서는 지방 경제발전자주 통일로써 전문가인 신창민 교수와 경제계 측면에서의 통일의 길에 대해 강연했다. 신창민 교수는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통일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이것은 연평중이 내려간 수목이다. 20대에서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진면목에 많지 못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경제적 대박'이 통일일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사실은 통일은 경제적인 면에서 돈과도 관련이 없다. 다만 '통일'과 '엑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이유는 남북이 높고 보더라도 '가치' '대박'이라 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통일 비용은 군비감축, 차관도입, 국제발행 등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며 빠른 경제수복 비용이 더 적게 든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통일 후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의 80% 정도를 남한에서 생산, 공급할 경우 매년 11%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며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 2만 5천달러의 시기에 통일하면 10년 후에는 1만 4천달러의 실용을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박적인 면에서는 경제협력과

«시진 원로에서 두번째부터 신창민 박사, 신선균 박사, 유재중 박사가 강연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했다.

는 협의의 논리와 전반적인 민심의 향배가 통일을 결정짓는 요인이 아니라 국민통일을 이루었다.

신 교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을 도모해 북한의 민심을 남한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와 함께 통일 후에는 사회간접자본이 구축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는 모교 명예를 높일, 중앙대 경영대학장을 역임하고 사단법인 통일경제연구협회 초대 회장, 이사장을 지냈다. 현재 남북 통일 비용을 연구하는 한우리 통일연구원이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이번 강연회는 신창민 박사와 이인우 총장, 신선균 박사(합대 명예교수)와 모교를 대표하는 유재중 박사(합대 60)가 보조 연사로 함께 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필라델피아'는 합대 명예교수 출신의 유재중 박사는 신창민 박사와 함께 동거 모교 명예를 거머쥔다. 합대 명예교수 출신의 유재중 박사는 신창민 박사와 함께 동거 모교 명예를 거머쥔다. 합대 명예교수 출신의 유재중 박사는 신창민 박사와 함께 동거 모교 명예를 거머쥔다.

신창민 교수의 강연회는 23일 필라델피아 한인교회에서 개최됐다.***

김선운 목사 '외로운 사람'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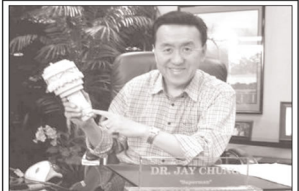
필라델피아 한인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해온 김선운 목사(외로운 사람)의 새 책이 출간됐다. 김 목사는 필라델피아 한인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해온 김선운 목사(외로운 사람)의 새 책이 출간됐다.

총 741페이지에 달하는 이 자서전은 '신사참례를 거부한 사람'이라는 순교자, 엘리야와 같은 탁월한 영적인 기강'의 부제가 붙어 있다. 이 자서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됐다.

1. 시작하는 말. 2. 나의 자서전의 믿음의 배경. 3. 나의 유년시절. 4. 나의 소망과 사명. 5. 해방의 기쁨과 고난. 6. 한국종교와 사목에서 경험한 것. 7. 고난에서 피난처를 찾는 일. 8. 1953년에 다시

대만에 복귀. 9. 서울대학교에서의 학과생활. 10. 약혼과 도미수속과 미국에 올 때까지 겪은 일들. 11. Westminster 신학교에 도착과 더불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 12. Westminster 신학교 학생회장 취임. 13. Temple 대학교 입학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과 학의 취득을 위해 겪은 고난과 승리. 14. Temple 대학교에서 부신전주의와 다른 믿음 극복하여 승리함. 15. Chestnut Hill 대학교 Gwynedd 대학에서의 교수 시절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교회를 시작함. 16. 교회 자체 건물을 구입. 17. 우리의 힘으로 예배당을 신축하고 경배함. 18. 한국 교회의 집회 인도와 미국 한인교회의 집회 인도. 19. 내게 책을 쓰게 시작한 것. 20. 내가 겪은 내 몸의 내용과 그 기쁨. 21. 나의 아들들의 믿음과 둘째 아들의 목회사역 계승의 영광. 22. 맺는 말 등으로 나누어 쓰여 있다.

김선운 박사는 1953년 경남 남해 출생으로 모교 합대 명예교수 출신의 유재중 박사와 함께 동거 모교 명예를 거머쥔다. 김 목사는 1979년까지는 필라델피아 KTV 7TV 방송에서 '오늘의 말씀(Bible for Day)'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다.***



정재훈 박사 뉴욕 새한장로교 강연

뉴욕 새한장로교 특별 말씀 사경회에서 강사로 초청

뉴욕 새한 장로교회가 세계적인 제이 우주과학자이자, 기업인인 정재훈(합대 64·사관) 박사를 초청해 특별 말씀 사경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내가 행동하는 법'라는 주제로 열린 집회에 강사로 초청된 정재훈 박사는 한 정재훈 박사는 신학자이자 제이 우주과학자이자, 기업인인 정재훈(합대 64·사관) 박사를 초청해 특별 말씀 사경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1년의 화성 탐사선 큐리오시티로에도 주요 부품을 제작하며 다양한 미국 우주개발 사업의 장단점 비평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다.

정재훈 박사의 개발을 가운대 큐리오시티로에도 주요 부품을 제작하며 다양한 미국 우주개발 사업의 장단점 비평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다.

또한 화성 표면의 성분 분석기인 X-Ray Spectrometer의 열 조정을 담당하는 정재훈 박사는 신학자이자 제이 우주과학자이자, 기업인인 정재훈(합대 64·사관) 박사를 초청해 특별 말씀 사경회를 개최했다.

정재훈 박사는 모교 합대 UC 어바인대학을 졸업한 우주 항공공학자이자 제이 우주과학자이자, 기업인인 정재훈(합대 64·사관) 박사를 초청해 특별 말씀 사경회를 개최했다.



홍선에 한석란 동문 개인전 그룹전

서니 집회장의 '코스믹 드림' (원) 한국인 동문과 작품

무한세계에 매료... 새로운 달의 세계와 기쁨의 열과 맺는 것. 가장 한국적인 그림

남가주 미주 동창회 서니 집회(홍선) 회장과 한석란 동문은 6월 10일부터 전시회를 열었다.

한석란 회장의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전시회는 '코스믹 드림(Cosmic Dream)'은 한석란 회장의 우주와 사색에 관한 그림이다. 전시회는 한석란 회장의 우주와 사색에 관한 그림이다.

한석란 회장의 우주와 사색에 관한 그림이다. 전시회는 한석란 회장의 우주와 사색에 관한 그림이다.

비행 이론, 불행, 원시, 별의 죽음 등 우주와 관련된 수많은 발견과 학설에 해를 베풀고, 새로운 우주와 사색에 관한 그림이다. 전시회는 한석란 회장의 우주와 사색에 관한 그림이다.

한석란 회장의 우주와 사색에 관한 그림이다. 전시회는 한석란 회장의 우주와 사색에 관한 그림이다.

한석란 동문은 6월 10일부터 전시회를 열었다.

한석란 회장의 우주와 사색에 관한 그림이다. 전시회는 한석란 회장의 우주와 사색에 관한 그림이다.

한석란 회장의 우주와 사색에 관한 그림이다. 전시회는 한석란 회장의 우주와 사색에 관한 그림이다.

이달의 초대석<19>이종일 신항 America Bank이사장겸 뉴욕 Pace대 석좌교수

“한인은행은 중형과 소형의 이중구조 될 것”

소형은행은 합병 당해도 같은 비율로 계속 생겨
Relationship Banking이 Community은행의 장점

중·교리식생 생물시간에 아메바(Ameba)를 배운 기억이 있을 것이다. 아메바는 불특정 한 사람에게 되는 대상은 무엇인가를 통하여 마음껏 움직임을 볼수 있다. 즉 분열해서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 내곤 한다.

미주의 은행사태를 보면 꼭 아메바 생식과 같은 생각이 들곤 한다. 눈부신 성장을 계속하던 일부 은행들이 재정실적에 부진해감에 따라 소규모 은행을 합병(M&A)해 아메바처럼 먹이치우며 움직임을 부풀려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한일은행은 어떤가. 캘리포니아에도 현재 8곳에 이르는 한일은행들이 앞으로 23-25 정도는 합병될 것이라는 소문도 퍼다 있다. 한일은행들의 사세도 주류 은행회사처럼 큰 은행들이 작은 은행들을 먹이치우는 세상이 될 것이다.

신한은행 이사장이며 뉴욕 Pace 대 석좌교수인 이종일 박사(당대 65)를 만났다. 이종일 박사는 지난 1월 21일 LA의 JJ Grand Hotel에서 ‘Korean American Community Bank’의 초청과 내일 ‘을’ 타미를 강연회를 가진 바 있다. 이 박사는 상대 겸임주도 은행사회의 부진한 평정 실추현상을 통해, 미국과 한국 주류은행들의 은행실적들 같이 결합하여 이론과 실무 양쪽에서 빛을 발하게 한다. 따라서 옛날 삼국지의 공명(孔明)을 만나는 기분으로 그를 만나보았다.

“은행 사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보겠습니다.”

“은행이 정말 커져가는 과정에서 M&A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은행이 커지면 한 지역에 국한된 금융영업에서 어느 Risk를 다수의 고객과객들로 인한 Risk를 분산으로 극복이 가능해집니다. FRB자료에 따르면 소형은행에서는 중형은행으로 커지면서 수익성(ROA)과 ROE, 경영효율성 비율 등)이 높아진다. 그러나 대형은행으로 가는 경우 조차도 더 완벽적으로 경제적 이익과 대충위주에서 보편이나 중간계층 등 새로운 입주로 다양화 하는 과정의 필요성이 요소 등으로 Risk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형 은행들은 대형 은행사회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자본금이 대략 10 Billion 이하를 규모로 은행으로 하고 이 상을 중형의 시작으로 봅니다. 대형이라하면 100 Billion 이상을 말하지요. 지금 미국사회 일반인 행이라면 모두가 소규모 은행에 해당합니다.”

“대형은행은 소규모 은행에는 없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요.”

“대형은행들은 소형은행이 제공하기 힘든 다양한 상품들을 제공할 수 있어 이익에서 더 경쟁력이 높아져 각자 경쟁에서 소형은행들을 압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커가는 은행들은 규모의 경제를 더욱 실현하는데는 앞장설들이 점점 더 많아져 자급자족을 저구 키워야 합니다. 대충 동종종류로 늘리면서 또 새로운 영역(보험, 리스-부자금융 등)에 진출해 수수료 수입을 늘리라는 스트레스가 주입되고, M&A도 동종도 계속 불러들려 하는 데, 한일은행은 LA와 뉴욕 점 중심으로, 같은 한일은행들을 합병하려는 욕망이 큼니다. 이런 상황은 한일은행들이 미국 안에서 하는 일인 것이, 실제 FRB 자료를 보면 미국 전체 M&A에서 30% 이상이 같은 주 안에서서

“합병 때문에 소규모 은행들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지요.”

“FRB자료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역사를 가진, 소위 De Novo로 불리는 새로운 은행들이 생기는 빈도가, 소형은행들이 대규모 코르나이즈 은행에 합병당하는 것과 같은 비율로 계속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은행에서의 집중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소규모 은행들이 계속 생길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Relationship Bank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형은행들은 일반 영업에서 상대적으로 Cost가 높게 나오므로 인간적인 면에서 의 서비스를 중시하는 Relationship을 기조로 하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시장의 아홉마 한 사람이라도 Customer 개인개인을 극히 중시하는 고객관린이라고 할까요. 따라서 이 통계들 보면 한일은행에서도 나오지요. 그동안의 Niches 가진 소규모 은행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생기고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는 전혀 상상이 못한 전경이요 다. 대형으로 확장으로 붕괴되는

“한일은행이 중형은행이 되면 현지은행으로서의 상대적 잇점도 줄고 동포사회와 밀착관계도 끝나 더이상 한인은행으로 불릴 수 없는 변화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부터입니다. 그쪽 새로운 영역인 보험, 리스-부자금융 등에 진출해 수수료 수입을 높여야 하는 필요성 등이 그 과정에서 엄청난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아직 한일은행들은 없는 일입니다. 100억 자산대 중형은행들이 많은 수가, 중형은행으로 커가는 과정에서 리스크의 감소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밀착-재정적 요소와 판교적이 커져가는 조직의 복잡성 등, 전에 없던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FDIC 자료를 보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가장 큰 요인이 커지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은행이 커지면서 고객들에게서 나오는 수수료 등이 커지기 경향에서 소형은행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금융상권에 미치는 한 줄기 시장 같은 것이 아니라, 이 박사의 얘기를 따라 보면, 한 마디로 ‘해도(虎刀)의 위험’ 모든 것이 위험화(危懼化) 그지않나.”

“그곳에서 진출한 대형은행들은 현지은행과 경쟁에서 이기기까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한일은행들은 아메바에서 이어가려는 Niches를 동포사회에서 찾았을 겁니다. 그들은 미국 Community은행들이 영업전략의 중심으로 보는 Relationship Banking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지 진출한 고국은행들은 가장 상대적으로 약세인 Relationship Banking 사이에서 대타, 현지사회의에 익숙해지고 조금 영역을 확대하면 폐업가능 직원들이 손만 두면 떠나 버리고, Relationship Banking에서는 현지인들을 따라잡기 수 없지요. 예를 들어, 대형은행의 경제의 효율로 알려진 행정 전문가들이 한일은행에서 오래 일하면 아홉마 같은 저점점점해 현지고객 관리와 장기적 경쟁에서 밀리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한일은행이 중형은행이 되면 여러 발돋움한 현지은행으로서의 상대적 잇점도 줄게 되고 동포사회와 밀착관계도 끝나게 되고 더 이상 한인은행이라

“이종일 박사 부부가 탁발할 해인의 절근에서 발발 원형의 두 딸 한민·민비와 함께 촬영했다.”



이종일 박사(가면 뒤) 강연 도에서 대해 부설된 중이다.

고 불릴 수 있는 데는 아주 중요 한 변화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한일은행들은 앞으로 어떻게 한일은행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중형은행과 중형은행의 이중구조적인 금융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째 라인에서는 Relationship Banking을 하는 10대 내의 미국 자산을 가진 소형은행들과 중형으로 커진 소수은행들이 같은 지역에 커가는 상향히 다른 형태로 Banking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인사회에서는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다 B&B도 동종도 계속 불려들려 하는데, 한일은행들처럼 특수한 환경을 가진 소형은행들이 중형은행으로 커가는 과정에서 역사를 보일지 Model을 찾아가야 하는 것 또한 위험부담이 큼니다.”

“일부는 중국계 East West Bank를 모델로 보는데요.”

“중국계 EWB를 모델로 하는 것은 한미나도 무리입니다. 그것은 중국 이사회들의 인구유입 속도도 중형은행과 자급자족이 우리 한인사회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 전혀 다른 것도 EWB 모델이 적잖은 한일은행들이 따라하기에는 커다란 걸림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미국 회사사장은 중국대륙에서의 변화가 이곳에서는 영향이 한인사회에서 따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따릅니다. 그리고 전회적하면서 높은 부채비율과 높은 이익률을 좌우하는 한일과 극히 보수적인 중형은행들 분화 차이도 만만찮은 것 같습니다. 즉 매우 동종류의 은행 사이 적게 100-200 Down Pay하지만 중국인들은 50% 이상 다운을 합니다. 금융위기가 2008년 왔을 때도 적지않고 동시에 비즈니스 환경변화에 영향받은 한일은행들은 보수적 경영관념이 익숙한 중국인들을 고집으로 돈 중국은행들에게 큰 부정적인 영향은 훨씬 많았습니다.”

“물론 설립이 E&A이후에는 어떤 모델이 생겼나요.”

“합병의 장점을 살리려면 구조 조정이 필요하고 한일은행도 E&A자료로 보면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 은행들은 아주 적습니다. 중국에서는 지점을 폐쇄하고 여러가지 비즈니스를 통해 합쳐야 하는데, 그동안보다 다른 조직문화에 있어서는 적절할지 그렇게 해 보는 과정에 수리들이 떨어지는 차 마다 호되게 다른 다른 중대형 은행들에게 M&A를 당하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다음에 계속》





제22차 평의원 회의

“우리의 세계적 예술가 작품 세계를 감상한 것은 큰 수확”

동문들이 워싱턴 DC의 Smithsonian American Art Museum에서 미디어 아트와 세계적 인 거장 백남준의 작품 세계를 관람한 것은 아주 좋은 기회였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뮤지엄에서는 매달 12월 13일부터 8개월간 백남준의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었던 터라이기도 했다.

이 전시회를 관람한 동문들은 “우리의 세계적인 예술가의 작품세계를 감상한 것은 큰 수확”이라고 밝혔다.

이 전시회는 백남준 탄생 80주년(1932-2006)을 맞은 지난해, ‘Nam June Paik: Global Visionary’라는 타이틀로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세계적 비디오 아티스트로 인정받았던 백남준의 작품 제작과정 및 방식, 철학을 소개하는 회고와 실각을 가하고 있다. 이 취지에 맞게 백남준을 세계적 반열에 올려놓은 주요 작품 67점과 함께 스미소니언 미술관이 2009년 구입한 전시 소장하고 있는 ‘백남준 아카이브(Nam June Paik Archive)’에서 선별한 각종 자료 140점도 함께 전시됐다.

‘Father of Video Art’로 불리는 백남준은 전위음악과 영화예술 등에 기반한 혁신적 미디어 작품 활동으로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았으며, 20세기 후반 미술계와 후배 예술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상상력이 세상을 바꿔 놓



↑ ‘전자 수퍼 하이웨이’로 미국 대륙과 알래스카 하와이까지 연결하는 작품이다.

아니고 높이 평가했다.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수석 큐레이터이자 백남준 전문가인 John Hanhardt, senior curator of film and media arts, “이번 전시는 관람객들이 백남준이란 작가를 온전하게 전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일 뿐 아니라, 유희적 미학(playful aesthetic)을 통해 세상을 향한 눈여겨본 작가의 강한 열망을 느낄 수 있는 기회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1929년 최초 개관한 스미소니언 아메리칸 아트 미술관은, 연 110만명이 찾는 미국의 대표 미술전관 미술관이다.

특히, 백남준 연구와 국제적 중시 역할을 자부하고 있으며, 소장 중인 백남준의 Megatron/Matrix (1965)의 장기 보존을 위해 이 작품에 쓰인 구형 텔레비전 수백대를 사전에 수집해 놓는 등 백남준의 사후 작업

과 아카이브 보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스미소니언이 자체 소장 중인 Electronic Superhighway: Continental U.S., Alaska, Hawaii (1965), Zen for TV (1963/1976), Megatron/Matrix (1965), 등 백남준의 주요 작품들뿐 아니라, 미국 및 해외의 유명미술관, 개인 소장가들로부터 대여해 온 회화작품들도 포함돼 있다.

뉴욕 근린의 미술관의 TV Garden (74), 마드 갈라지 현대 미술관의 Whitney Buddha Complex(1982)가 주목되며, 그 간의 전시된 적이 없는 1996년 설치 작품 Moon Projection by John Moon and Birds도 전시되고 있다.

또한, 백남준 아카이브 자료 중 주제별로 선별한 개인 기록물들을 소개, 백남준이 다양한 분야에서 남긴 업적을 종합적

으로 보여주고, 다층적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있다. 그간 백남준의 작품을 선보인 전시는 종종 있었지만, 이번 전시는 그의 개인 기록물과 작품 제작과정들이 실제 작품들과 함께 소개되는 점에서 기존 전시들과 차별화되고 있다.

또한 기록 및 자료를 통해 그가 동시성 철학과 과학기술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글로벌 미디어의 화가 화강되던 당시의 상황을 혁신적이고 급진적으로 개성화하여, 미래의 통용기술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자 했던 점도 한 걸음 짚어볼 수 있게 한다.

담당 큐레이터 John Hanhardt가 제작한 전시 도록은 백남준의 작품 여정과 예술의 실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조카 Ken Nakata가 백남준의 생애를 회고하며 쓴 에세이도 들어 있다. <자료: 한국 국제교류재단>



<14면에서 계속>

규모의 정자차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Chase-Citibank는 대형은행들처럼 오히려 알리고 및 개로 존재 가능성도 있지만, 중형은행들은 그들의 특수성이 또 있습니다.

Chase-Citibank는 규모에 걸맞게 좋지 않다고 하겠다.

“조직이 너무 비대해진 탓이지요. 은행의 위상성 조치가 너무 커지면 CDO가 손바닥에 경계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버리지만, 게다가 사이드 커진다면, 지난해 금융위기에서 보았듯이, 시너지를 제공으로 ‘Too big to fail’로 통하는 대형은행을 불러들이고, 경제사회의

의 대형은행에 대한 적대감이 커진 환경에서의 어려움 등도 대형은행들이 알아야 할 도전적인 환경입니다.”

(이종영 박사는 상대 불일치 시 서울에서 Chase Manhattan Bank에 입사해 오인식(비주동장회 전 회장) 등을 작곡상관으로 모시고 잠시 일하다 1974년 Rotary장학

생으로 선별해 도미유학길에 올랐다.)

이종영 박사 프로필

- 1970 모교 선배 장학금과 졸업
- 1974년 Vanderbilt 대학 Rotary 장학
- 1975-1978 Louisiana 대학 사정
- 1978 New York주립대 Buffalo 장학금
- 1981 Cal State Univ. LA 교수
- 1989

Gustafson Arthur Anderson석좌교수, 학과장, 부직장

- 1989-1992 New York Pace 대학 석좌교수
- 2004 신안 American Bank 이사
- 2005년부터 현재까지 신안 American Bank 이사
- 장정 New York Pace대 석좌교수, 국제학술지 ADMA 편집인

<이거만 편집주간>

제22차 평의원 회의 참가 서울 및 미주 동창회임



서울을 비롯해 이번 제22차 평의원 회의에 참석한 미주 지역 동창회 동문들은 다음과 같다. (사진 위에서부터 아래로)

▶ 모교 동창회 = 임광수 총동창회장, 공대식 부회장, 이형근 부회장, 최종고 대덕원 동창회 회장.

▶ 남가주 동창회 = 김은중 미주 동창회장, 조동준 미주 동창회보논설(편집)위원, 김상찬 남가주 동창회장, 한종철 남가주 동창회 전 회장, 서지원 남가주 동창회 전 회장, 김동서, 제영태 남가주 동창회 전 회장, 염인숙, 박자경·이혜숙·김기형 남가주 동창회 재무국장, 유해연 동문.

▶ 모교 동창회 이형근 부회장이 부인과 함께 전야제가 열린 푸라데에서 한 잔의 친목을 했다.

▶ 하틀랜드 동창회 = 구명선 동창회장, 배규영 전 회장, 김요원·이장진 동문, 김경숙(이성강 동문 부인) 동문.

▶ 중부 텍사스 동창회 = 이명재 중부 텍사스 동창회 전 회장, 김청자 동문(이명재 전 회장 부인), 이호성 휴스턴 동창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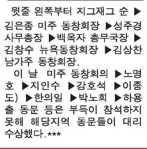
▶ 뉴잉글랜드 동창회 = 정선주 동창회장, 윤상래 전 회장, 김은한·정정숙·박영철·이강원(홍지복)·도삼주 동문.***



임광수 총동창회장 공로패 시상

김은중 회장 비롯해 총 12명 수여

모교 임광수 총동창회장은 22일 본회의가 끝나고 난 뒤 이이진 단장실에서 그동안 동창회를 위해 봉사해온 동문들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공로패를 받은 동문은 미국 동창회의 ▶김은중 회장을 비롯해 ▶노명호(판악후원회 부회장) ▶하용춘(Washington주립대 교수) 동문 등 12명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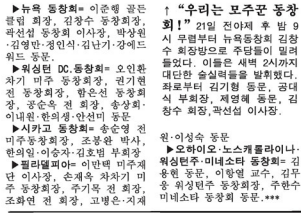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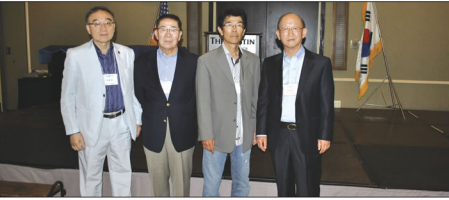
윗줄 왼쪽부터 지그재그 순 ▶ 김은중 미주 동창회장 ▶성주경 사무총장 ▶박옥자 총무국장 ▶김광수 뉴욕동창회장 ▶김상찬 남가주 동창회장
이 날 미주 동창회의 노명호 ▶지인수 ▶강호석 ▶이종도 ▶한희일 ▶박노희 ▶하용춘 동문 등은 부득이 참석하지 못해 해당지의 동문들이 대리 수상했다.***

김은환 미주 동창회장 공로패 시상

이만택 이사장 비롯 총 12명 수여

김은환 회장은 우대목에서 동창회를 위해 봉사하신 동문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날 공로패를 받은 동문은 (사진 왼쪽부터 지그재그 순) ▶이만택(비주제단 이사장)·미주 동창회 ▶조동준(논설·편집위원) ▶박선집(뉴욕 동창회 이사장) ▶김은환(뉴영

글랜드 동창회 상임이사) ▶박경일(감사) ▶함은선(워싱턴 DC 동창회장) (이하 개인 사정으로 불참) ▶김건전(상임고문) ▶김제영(감사) ▶김병연(IT위원장) ▶이상대(설의국장) ▶이경희(사임국장) ▶임천빈(샌디에고 동창회 전 회장) 등문 12명이다.***



▶뉴욕 동창회= 이준형 글든 클럽 회장, 김창수 동창회장, 박선집 동창회 이사장, 박기환·김영만·정인식·김난기·강에드워드 등문.

▶워싱턴 DC 동창회= 오인환 차기 미주 동창회장, 권기현 전 동창회장, 함은선 동창회장, 공준욱 전 회장, 송상희, 이내원, 한의경 안선미 등문.

▶시카고 동창회= 송순열 전 미주 동창회장, 조봉환 박사, 한의일, 이승자·김효범 부회장 ▶필리핀 피아= 이만택 비주제단 이사장, 손재욱 차차기 미주 동창회장, 주기욱 전 회장, 조화연 전 회장, 고병은·지재

↑ “우리는 모주꾼 동창회!” 21일 전아제 후 밤 9시 무렵부터 뉴욕동창회 김창수 회장방으로 주담들이 밀려들었다. 이들은 새벽 2시까지 대란만 숭실덕들을 발휘했다. 좌로부터 김기향 등문, 공대식 부회장, 제연태 등문, 김창수 회장, 박선집 이사장.

원·이성숙 등문
▶오후이오·노스캐롤라이나·워싱턴주·미네소타 동창회= 김충현 등문, 이항일 교수, 김무웅 워싱턴주 동창회장, 우한수 미네소타 동창회 등문.***



1제11대 김근촌 회장(오른쪽)이 제12대 오인환 회장에게 '제1 서울대 동창회' 기를 인계하고 있다.

미주 동창회기 인계식과 회의를 이모저모

6월 22일 평의원 회의 본회의 공식 일정이 모두 끝난 뒤 '제1 서울대 동창회'의 교기 이양식이 있었다.

미주 동창회 제11대 김근촌(상대 59) 회장단 체제에서 제12대 오인환(문리대 63) 회장단 체제로 넘어가는 것이다.

제12대 미주 동창회장은 전보 대 4년 째 이어진다. 이와 함께 동창회 전반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은 현직의 성주경(상대 68·사진 오른쪽) 사무총장에서 정경희(공대 71)사무총장으로 3년 째다. 앞으로 2년 뒤은재욱(가정대 77) 회장이 될런 더 이어질 것이다.***



89·91세의 최고령 동문 참석

이런 미주 평의원 회의에서는 89세와 91세의 최고령 두 동문이 참석해서 큰 박수와 함께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한 분은 1924년 출생으로 약 대 1943년 입학의 방은호(89세) 동문이고 또 한 분은 1946년 공대 입학의 김동규(90세) 동문이다.

방은호 동문은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지역 일대에서는 잘 알려진 분이다. 또한 그동안 미주 동창회에 글을 게재하곤 해서 더 지역 동문들이라도 잘 알고 있는 동문도 많을 것이다.

방은호 동문은 1945년 약대 1회 졸업생으로 1948년 도미

해서 현재 메릴랜드에 거주 중이다. 6년 전 피싱암 수송을 맡아왔으나 지금은 전직의 회백 해 하루 700마일을 직접 운전할 수 있고 푸상을 50년째 정도도 왕성한 체력을 자랑하고 있다.

한편 김동규 동문은 1922년 출생으로 다소 늦은 연령에 만났던 공대에 입학해 1952년 졸업했다.

고령이라 거동이 좀 불편하지만 현재 한국 항만협회 자문위원으로 항공기술사이며 IT EC 관리사이기도 하다.

더구나 지난해 12월 19일에는 한국 전자 공기에 대해서 자력 시험에도 합격할만큼 정력을

↑방은호 동문이 한복을 곁에 차려 입고 나와 오인환 차기 동창회장의 소개 후 두 손으로 동문들에게 Heart 모양의 Love 표시로 화답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김동규 동문이 다산에서 지난해 대에 간담회 소개하는 장면이다.

자랑하고 있다. 나이에 상관없이 무엇이든 자각시행이었다면 무조건 도전하고 본다는 것 정말진으로 가득차 있다.

한편 이석 하도에서 지난 2006년 미국 대령이 오든 김주리 대령(1951년생)이 김 동문의 넷째 따님이다. 김주리 대령은 메릴랜드대 경제학과 수석 졸업생이다. 입대후 지난 2003~2004년 미군정 자문관으로 이라크전에도 참전했었다.*** <편집주간>



임광수 회장 & 이준형 회장(왼쪽)

1년만에 다시 만난 67년 수어지교

"평의원 회의가 모두 끝나고들이 대서추세즈주 남동쪽 해안에 있는 Martha's Vineyard Island에 갈 것이다."

1년만에 임광수 회장을 다시 만난 뉴욕 글든클립의 이준형 회장은 유쾌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올해로 67년에 이어져 온 두 분만의 수어지교(水魚之交)는 이미 동창회보 2012년 7월호에 소개한 바 있다.

공대 48학번 동기로 임광수 회장의 미국 방문길에 이미 어디든지 불완전 영어까지 만나는데도 두 분만의 오묘한 시간들을 위해 이같은 재회를 즐겼을 것.

이준형 회장은 "그 시절에 가서 같이 사탕도 사먹고 아이스크림도 사먹으면서 어떤 저 생각을 같이 할 것"이라고 했다. 마치 친친스런 동성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크림도 사먹으면서 어떤 저 생각을 같이 할 것"이라고 했다. 마치 친친스런 동성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임광수 회장은 "내년 3월이면 내 휴가가 끝난다. 평의원 회의에 다시 못올지도 모르는데 친구가 이렇게 배려해주시니 참으로 고맙지요."

"평의원 회의가 끝나자 마자 섣달은 요리를 맛보기 위해 단들이 택시를 타고 나갔다가 태국 음식점에 들렀어요. 배구에 약속이 없어 무조건 야구기사렸는데 여짜나 펼던지도 저러 하지 못하고 나와 요리값과 택시값만 날렸지요" 하시며 열렬 웃으셨다.

"마음이 맞는 극진한 친구(眞心之友) 사이는 친연이 가도 변하지 않는 사이"라고 했다. 이 두 분이 바로 이런 사이인 것이 분명해 온크리 부위였다.*** <편집주간>



"우리는 가장 확실한 서울대인"

원광복 남가주 동창회의 김상찬(문리대 66) 회장, 유혜연(문

대 79), 김기형(상대 75) 동문이 서울대 마크가 찍힌 셔츠를 입고 나와 가장 확실한 서울대인의 Identity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털보 3인방"

시카고 동창회의 김호범(상대 69) 사무총과 워싱턴 DC 평의원(농대 69), 뉴욕 동창회 박성진

(음대 69) 동문이 수평이 가득한 제 나하나 털보 3인방 모습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교롭게도 모두 69학번 동기다.***



남가주 동창회

Los Verdes GC,에서 골프대회

남가주 동창회(회장 김상환, 본리대 66)의 '2013년 순계골프대회'가 지난 6월 2일 캘리포니아 지방의 Los Verdes Golf Club에서 열렸다.

골프대회는 총 109명의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골프대회는 한테로 총무국장과 김기형 재무국장 등에 의해 진행됐다.

이날 많은 동문들이 경기를 후원해주어 후원 광고비가 5천 700달러나 됐다.

또한 많은 동문들이 물품을 도네이션해주었다는 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백세주 USA (최정관 사대71), Voice Caddie(김남일), 유성숙 (사대 80), Best Grocery Wholesale(홍사진), 서울대 병

원 LA 사무소, 5번 홈 게임 도네이션(414달러) 등이다.

구름이 많이 낀 데다가 다소 짜늘한 날씨 속에 진행된 이날 골프대회에서는 각 팀마다 아주 흥미진진한 플레이가 속출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기를 마친 동문들은 인연에 위치한 뷔페식 식당에서 사상식과 함께 신나는 뒷담화 행사를 열었다.

남가주 동창회 김상환 회장은 "약간은 아쉬운 날씨 속에서도 많은 동문들이 참여해주어 아주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욱 신명나는 동창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골프대회의 수상자는 다



↑ 왼쪽부터 이종철 교수, 미주 동창회 김재원 감사, 지인수 편집위원장, 김은용 회장, 백옥자 총무국장 등도 참가해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었다. 오른쪽 사진은 여성 동문과 동문 부인들

유과 같다. (아래 사진 참조)
▶남녀 챔피언 = 박정모(본리대 66) ▶Mrs. 김용찬 ▶메달리스트 = 이재준, 제영혜 ▶근접심 =

오호중(지대) ▶김경옥 ▶장탁상 = 차재윤 ▶Mrs. 노명호 ▶정확한 남가주 총동창회에 다시 도네이션 하는 의미를 발휘해 동문들로부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 ▶홍사상 = 유혜원(윤대 79) 한편 정확상을 수상한 김승철 동문은 부상으로 받은 상금을 남가주 총동창회에 다시 도네이션 하는 의미를 발휘해 동문들로부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편집주간



남가주 동창회 관악연대

리저널 파크서 제1회 가족 체육대회

성근형 5월 6일 아침 '동심'에 출현, '오랫차차'

이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열린 이 체육대회는 정말 오랜만에 그 옛날 어린 시절의 파크에서 운동회의 고임을 가졌다. 이날 도민은 관악연대가 결성된 이후 첫 체육대회 행사로서 '제1회 관악연대 가족 체육대회'로 이름이 지어졌다.

화창한 날씨 속에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 신나는 아이들의 함성, 준비한 이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 그리

고 열광 가득히 함박웃음, 이는 하나 완벽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열린 이 체육대회는 정말 오랜만에 그 옛날 어린 시절의 파크에서 운동회의 고임을 가졌다. 이날 도민은 관악연대가 결성된 이후 첫 체육대회 행사로서 '제1회 관악연대 가족 체육대회'로 이름이 지어졌다.

60여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즐거운 식사 후 청담과 맥밀로로 나누어 배구, 피구, 윌리엄스, 줄다리기 종목에서 사정관(??) 대결을 펼쳤다.

↑ '제1회 관악연대 가족 체육대회'에 참가한 동문과 가족들이 행사에서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치열한 점진의 결과는 흥수 학원 중심의 백미이 박수 학원 중심의 점진을 아슬아슬하게 제치고 우승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승부를 떠나 모든 참가자들이 모처럼만에 함께 즐겼던 '동심'과 '가족'을 갖는 소중한 행사였다.

이번 행사 현장의 소중한 순간들을 '빛나달' 팀의 촬영으로 웹사이트 아크로에서 보다 여러 장면으로 자세히 볼 수 있다.

이날 박찬한, 김지영, 정종진 동문들이 사진 촬영에 크게 수고해주었다.***

동창회비·관악후원금·광고및 업소록비·기타 후원금(*2012년 7월 1~ 2013년 6월 30일까지)

2012.7월 이후
동창회비 납부

[illegible]

*동문께서 보내주시는 각종 후원금은 Tax감면 대상이 됩니다.

Federal ID No.
13-3859506

*동창회비를 비롯한 후원금
은 동창회 운영과 동창회보
발간의 근간이 됩니다.

*광고 디자인은 매월 초
에 보내주십시오.
snuaausa@yahoo.com
총무국장 백옥자
(818-225-8411)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후원금 (회계연도 2012년 7월 ~ 2013년 6월)

성명: 한글	영문	단과대학 및 대학원:	입학연도:	
집주소:		전주주소		
업소 이름:	업소 주소			
전화: (B)	(H)	(C)	(Fax) e-Mail:	
입학후원금	동창회비 (구독료)	업소등록 광고비	입만광고비	특별후원금
연\$200 ☐	2011~2012년 \$75 ☐		명랑카드기 (3.5" x 2") \$100	동창회 후원금 \$ ☐
연\$500 ☐	2012~2013년 \$75 ☐	2012~2013년 \$120 ☐	1/6인치 (5" x 4.5") \$200	지부 부담금 \$ ☐
연\$1,000 ☐		2012~2013년 \$200 ☐	1/3인치 (10" x 4.5") \$400	통신 이사회 \$ 3,000 ☐
		다자인명함 1/2 \$500 ☐	1/2인치 (10" x 6.7") \$800	
		다자인명함크기\$500 ☐	천면 (10" x 13.5") \$1000	
보내실 곳 : 1225W, 190th St. #465., Gardena, CA 90248		Fax: 310-515-7883		e-Mail: snuausa@yahoo.com
지불방법 (Check 또는 Card) Pay to order of 'SNUAUSA'				
Visa() Master() American Express() 기타() 전화 <310-515-7888>로() Check No.()				
Card No.:	Security Code:		Expire Date:	
Cardholder's Name:		Date:		
Address No. Only		Zip	Pay to order of SNUAUSA	

연계미팅 컨설팅

Lee & Ro, Inc.
노영호(공대 61)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운동/유통/관광/연계

SeAH Steel America, Inc.
유희/강관도매
이병준(상대 55) (562)692-0609
95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은행/지점

Hanin Federal Credit Union
이영민(문리 53)
213-389-9000
3700 Wilshire Blvd. #1700 LA. CA 90010

SK Window

류 원(대학원 74)
213-700-4119
901 E. 31 St. LA. CA 90011
ryuwoon2000@sun.net www.srwindow.net

의료/약국

Gilbert Pharmacy I
* 최무식 (약대 66)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의료/치과

California Family Dental Center
* 이영송(치대 65)
(323) 266-1500
4080 E.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3

Daniel D. Chung DDS, Inc.
정대연(치대 74)
(714) 995-5000
8884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Seonho Ha Prosthodontics
허선호(치대 81)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 510 LA. CA 90010
dshahp@yahoo.com

의료/내과/전문외

권영재 소아과
* 권영재(의대 57)
(562) 435-4777
1040 Elm Ave. #200 Long Beach CA 90813

김일영 심장내과
* 김일영(의대 65)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정수만 암내과 · 혈액내과
정수만(의대 66)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643

South Bay Cancer Center
나정자(간호 70)
310-978-4670 310-543-5327
14608 Hawthorne Bl. LA. CA 90260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농대 80)
909-862-3800 (0) 714-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rdino CA 92404

케이팝

LA Supply
전승택(사대 60)
(562)-404-1552
13700 Rosecrans Ave. San Jose CA 90070



컴퓨터/컨설팅

Computer Pro
황재우 (공대 83)
(310) 626-6391
22590 Crenshaw Blvd. #R,
Torrance, CA 90505

교회

라 카나다 한인교회
특고 현(공대 65)
816-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식목/음식점

강남척관
Kang Nam Restaurant
323-937-1070
4103 W. Olympic Blvd. LA. CA 90006

마포 주물목 Mapo Korean BBQ
Restaurant (310) 679-9622
1409 S. Crenshaw Blvd. #102 Gardena
CA. 90248

용수산 Yong Su San
Traditional Korean Cuisine
213-389-3042
950 S. Vermont Ave. LA. CA 90006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호(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복 가주

상점/컨설팅

두리하나 결혼정보
9년 전 설립해 현재 다수 회원 확보. 높은 성공률과 양인 추천, 재혼자 라이프 스타일, 서둘러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정지선(상대 58) (510) 224-0760 2910
Telegraph Ave. Ste. 200 Oakland
CA 94609 www.2skes1.com

수의학/동물병원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수의대 67)
(3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의료/전문외/치과/안과

박희래 한의원
임희래(간호대 73)
(831) 818-2959
627 Water St. Santa Cruz CA 95060

비행리포트 해안 극지 에너지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
Polar Engineers
정진수(공대 56)
(650) 254-1871, 495 N. Whisman
Rd. Ste. 300 Mt. View CA 94043

MD, VA 워싱턴DC

Fairney Asset Corporation
남복현(경영대 84)
301-279-6969
414 Hungerford Dr #203 Rockville MD 20850

공인회계사

Lee Kyu Sup, CPA
이규섭(상대 68)
(703) 642-2900
4330 Evergreen Ln. Suite H Annandale, VA 22096

개인관리

IPM Family Wealth Management
이태원(법대 60)
(410) 777-8081 ex158
345 N. Charles St. Baltimore MD 21201
taltee@ipmll.com

Fairney Asset Corporation
남복현(상대 84)
301-279-6969
414 Hungerford Dr #203 Rockville MD. 20850

변호사/법률사무소

Moon-Park & Associates
박성근(법대 75)
(703) 941-7395
7617 Little River Trpk #330
Annandale VA 22003

부동산/장계

BPS Appraisal Company
박병일(농대 69)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병원/지각

이준영 치과(치대 74)
(301) 220-2828 (301) 9628-9892
6201 Greenbelt Rd Ste. 10, College Park MD 20740
86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GA 조지아

리태일/리태민

Auto Plaza Group, Inc.
이왕진(공대 76)
678-473-4731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FOB Synthesis Inc.

최우백(공대 76)
(404) 601-1412
3400 Cobb International Blvd Kennesaw GA 30152

IL-IN 시카고

의료/내과/전문외/치과

Suh Sang Hun, MDPC
서상헌(의대 85)
(773) 522-2010
1401 S. California Chicago IL 60608

* 이준우 치과
이준우(치대 54) (847) 390-7474
9101 Greenwood Ave. Suite #301
Niles, IL 60714

TX 텍사스

산업/건축

C&C Industries, Inc.
진기주(상대 60)
(713) 443-4593
10350 Clay Rd., #250 Houston TX 77041

MA 뉴잉글랜드

병원/수의사/동물병원

Twin City Animal Hospital
윤상래(수의 62)
(978) 343-3049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NJ-NY 뉴욕/뉴저지

건강

!! 암, 에이즈 !!
한인수(사대 73)영생건강
718-762-0812
세계 최초 Plant stem cell(줄기) 분리배양 성공.
2010년 11월 Nature 지 논문 발표.

공인회계사

Wesley Y. Chung CPA
정유희(상대 55)
6385 Whitestone Place
Duluth GA 30097

에드워드 캄, CPA.

• 김창수(사대 60)
1212594-9034
5 Renaissance Square Suite 31E White Plains,
NY 10601
edwardcmkang@yahoo.com

Changsoo Kim, CPA P.C.

• 김창수(사대 64)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nd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enneth K. Lee CPA

이경원(상대 64)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Sung N. Pak, CPA

박성남(사대 76)
212-760-2338
481 8th Ave. #1549 New York, NY 10001

Young Tai Choi E.A.

• 최영태(문리 67)
(212) 695-0206
13 E 30th St. 2F New York NY 10001

리테일리

New York Golf Center
이진구(농대 6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변호사

연봉헌 변호사

• 연봉헌(문리 61)
(212) 779-1828
1261 Broadway #201 New York NY 10001

Tai Cho, Attorney at Law

• 조대영(공대 61)
(212) 779-7770 (914) 782-0432
445 5th Ave., Suite SE New York NY 10016
taicho@tai.com

부동산/장계업

Evergreen Realty

• 이자영(법대 60)
(201) 944-5353
242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코스모 부동산

이재익(법대 60) 201-944-4949(C)
201-784-3367(C)
258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Nothern Realty

김은희(강조대 71)
(718) 225-4500, (917) 686-3360
45-22 Little Neck Pkwy #5 Little Neck
NY 11362, eunicekim RE@gmail.com

운송 / 유류 / 통관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희(농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의료 / 내과 / 전문의

이재진 심장내과

이재진(의대 59)
718-426-4664
37-24 75th St. Jackson Heights, NY 11372

Young S. Hahn, M.D.

함영수 안과(의대 61)
(718) 478-3344
40-23 74th St. Elmhurst NY 11373

발문재 내과

발문재(의대 63)
(718) 768-1264
200 Prospect Park West Brooklyn NY 11215

사회사업 / 법인

Women In Need Center

유지계의 장 여성 임시쉼터
김동경(음대 82)
P.O. Box 540599 Flushing NY 11354

NV 네바다

Best Care Dental

김영웅(사대 86)
702-391-2828 702-480-7115
5205S. Durango Dr. #103 Las Vegas NV 89113
www.bestcaredentaliv.com

OR 오레곤

Flonox Inc.

박희진(농대 78)
602-418-5383
P.O. 7416 Beaverton OR 97007

* 열람 환급고

최근범(사대 63)
503-231-1625
6161 SE Stark St. Portland OR 97215

PA 필라델피아

동물병원/사당

GREGORY K. JOO, DVM
MICHELE CAMPBELL, VMD
JOHN CAMPBELL, VMD
COMPAK ANIMAL HOSPITAL
1212 Commonwealth
Philadelphia, PA 19111
주거복(수의대 68)
telephone: (215) 443-4026
fax: (215) 443-3368
email: ocdhennan@compackhospital@gmail.com

“웃으며
삼시다”

자존심 손상회

요사이 새로 제정된 형법에 ‘자존심 손상회’라는 조항이 있더군요.
그 종류와 형량이 아래에 갑니다.
*노경 상인에게 왜 끌고 안지나고 묻는 죄 : 징역 1년.
*왜 강남(江南)에 살지 않느냐고 묻는 죄 : 징역 3년.
*자녀들이 모두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느냐고 묻는 죄 : 징역 5년.
*아들 딸이 언제 결혼하느냐고 묻는 죄 : 징역 10년.
*손자, 손녀 일었느냐고 묻는 죄 : 징역 15년.
*자식 취직했느냐고 묻는 죄 : 무기징역, 끝으로...
*작달막한 키에 두글 주글, 평범한 60대 마누라 보고 왜 ‘폐천 모델’로 나가지 않느냐고 묻는 죄, 요것은 ‘사형’
여러분, 각별히 주의 하십시오.

아내의 생일 케이크.

남편이 아내의 생일 케이크를 사려고 제과점에 갔다.

이츠미 일식당

최충문(공대 61)
(215) 412-4228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건축 설계

Timothy Heah & Assoc.

손재욱(생물과대 77)
49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 X0 Blue Bell PA 19022

TX 텍사스

산업

C & C Industries, Inc.

권기원(사대 60)
713-443-4653
10350 Clay Rd. #250 Houston TX 77094

WA 워싱턴 DC

제약/약방

Key Compounding Pharmacy

박희주(약대 83)
206-678-3900
530 S. 336th St. Federal Way WA 98003
heajoo@keycompounding.com

제일 크고 화려한 케이크를 골라서 주인에게 부탁했다.
“케이크에 글자를 넣어주세요.”
“당신은 즐기지도 않는데...”
“더 건강해지는 것 같소” 라고요.
“아! 잠깐, 한 글로 쓰지 마시고, 위에다 “당신은 즐기지도 않는데” 라고 쓰시고요.
그리고 밑에는 “더 건강해지는 것 같소” 라고 써주세요.
잠시 후 많은 친구와 친지들이 함께 한 파티가 시작되었고, 케이크에 붙을 붙일 시간이었다.
상자에서 케이크를 꺼내는 순간,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과 아내는 기절하듯 말했다.
케이크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있었다.
“당신은 즐기지도 않는데, 밑에는 더 건강해지는 것 같소.” ***



원고 청탁

▶시·수필·칼럼·여행기·특수간·기타 = 동창회보는 모든 원고들의 글을 받아 게재하고 있으나 언젠가는 글을 주시길 바란다. 글의 주제와 내용은 제한이 없다. 다만 지나치게 정치사회적으로, 이념적으로 너무 민감한 내용이나 사회적 갈등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은 다소 규제를 하고 있다. 또한 공교적으로 너무 지루한 내용 역시 마찬가지다.

문장은 꼭지기가 아닌 경우 소-4(Letter)봉투 3개 이내로 일괄 사진과 연락처를 반드시 보내

주시기 바란다.

▶My Journey to America = 동창인들의 지나 온 과거를 그리는 인지를 늘 Journey to America 시리즈에서 김대환(문리대 80) 동문생 이어 권운희(시용정 양학과 87) 교수와 '파견하지 않는 삶'의 열매'가 4회로 글을 맺고 지난 해 10월호부터는 계속되지 않겠다.

이름 동문생에서 여기에 따라 한 줄을 더의 보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동문생에서는 이 시리즈에 글을 써서 앞으로 자신의 자서전으로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빨리 이용해주시기 바란다.*** <편집주간>

‘편집후기’

○Hi고 Money Belt = 위싱턴 DC 제22차 미주 동창회 평의회 창설을 위해 2012년 11월 LA공원에서 참모로 제미있는, 또 하나, 참모로 당혹스런 해프닝을 겪어야 했다.

첫번째는 미주 동창회 총무국장의 경우였다. 월드 케리 가와 와이에 대를 찾았다. 먼저 사무총장이 감세대를 통과하고 그 뒤를 따라 감세대를 지나갔는데 감세위원이 눈을 부라리며 열광으로 오란다. 그러면서 배를 가리키며 지열이는데 요지는 내 배에 Money Belt를 찬 것 같으니 감정감세를 해봐라였다.는 거다. 눈을 부라

거부해버린 것이다. 아무리 사정해도 들어주지 않자 다급해진 총무국장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는 계속해서 Hi로 내려뛰는 바람에 주변 여행객들의 목숨을 지아냈던 것. 그 상의가 통원한 자 감세대 직원도 몇몇이 OK.1. 또 하나는 필자의 이야기다. 애스클리페이터를 타고 2층에서 사무총장과 함께 이 광경을 아주 신나게(?) 보고 있다가 함께 감세대를 찾았다. 먼저 사무총장이 감세대를 통과하고 그 뒤를 따라 감세대를 지나갔는데 감세위원이 눈을 부라리며 열광으로 오란다. 그러면서 배를 가리키며 지열이는데 요지는 내 배에 Money Belt를 찬 것 같으니 감정감세를 해봐라였다.는 거다. 눈을 부라

리던 녀석이 절정 의기양양해지는데 계속히 나타났다. ‘너 잘 걸렸다. 오늘 한 건 겠다!’ 하는 심정으로 분해했다. 그자위에서 몇몇이 보여주고 싶었지만 별로 자랑할만한 물건(?)도 못보는데 감세방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됐다. 그 방에서 셔츠를 확 올렸더니 흑인 두 녀석이 고개를 갸웃하더니, 다시 감세대의 책가방 내리려 하니 그제서야 “Oh, No!” Gates로 향하던 중 먼저 감세위원과 마주치게 됐다. 그들에게 “너 어찌서 나를 의심했니?” 했는데 사무총장이 “그 말무가 너무 무시무시하더라” 고 했다. 총무국장 해프닝에 너무 웃어 봐왔었다가 보다.*** <편집주간>

각 지부 회장단

남가주	회장 자기회장	김상철(문리 66) 714-396-0493 skcm@rockwellcollins.com
북가주	회장 자기회장	이장우(문리 72) 408-891-0200 president@snuua-nc.org 박희재(간호 76) 831-818-2959 acuheere@hotmail.com
뉴욕	회장 자기회장	김창수(약대 64) 212-760-1788 changsokkimcpe@hotmail.com 박상일(공대 99) 917-327-2989 sangparknyc@gmail.com
뉴잉글랜드	회장 자기회장	정선주(간호 68) 781-674-4298 yoonpark6@yahoo.com 장수진(음대 76) 978-264-2988 sjn1hnee@comcast.com
달라스	회장 무회장	최 연(공대 70) 817-919-3057 yunchoy@sbcglobal.net 오기영(공대 73)
텍사스 마운틴스	회장 자기회장	표한솔(치대 58) 303-822-9370 303-755-1168 drpyo@aol.com
미네소타	회장 자기회장	변우진(인문대 81) 952-926-0040 woodlaw@yahoo.com
샌디에고	회장 자기회장	심상철(공대 81) 858-436-5498 sdunison@gmail.com 최홍수(자연 87) 858-259-5273 heungsoo.choi@knobbe.com
시카고	회장 자기회장	한일일(공대 62) 312-213-8557 eyul1hahn@gmail.com 김호범(상대 69) 847-657-8919 hkim@mcogang.com
애틀랜타	회장 자기회장	오원환(문리대) yho@rathson.com
알래스카	회장 자기회장	류재준(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배석현(공대 58) 907-561-0618
오레곤	회장 자기회장	이석진(공대 89) 503-317-5625 seokjin@gmail.com
오하이오	회장 자기회장	송원길(의대 58) 614-378-2918 wnsong3140@aol.com
워싱턴DC	회장 자기회장	함은선(음대 77) 703-969-3006 samilaur12010@gmail.com
워싱턴주	회장 자기회장	김무용(음대 64) 253-228-4396 cizno2@gmail.com
유타	회장 자기회장	배우현(공대 73) 801-474-1945 you.bae@yahoo.com
조지아	회장 자기회장	박 민(음대 80) 770-449-0000 minparkgh@yahoo.com 김정호(공대 74) 770-814-0618 jhkim@nobank.com
중부 텍사스	회장 자기회장	김성근(법대 78) 512-750-4680 hschris@gmail.com
필라델피아	회장 수석부회장	민홍식(수학대 60) 267-577-0502 hungmin43@gmail.com 김정현(공대 68) 484-744-6785 dhk0646@gmail.com
플로리다	회장 자기회장	박창익(농대 64) 954-599-3452 changikpark@daum.net
캘리포니아	회장 자기회장	정신희(자연대 78) 919-828-9696 sinho.jung@duke.edu 이상구(자연대 78) 919-610-2830 sleet09nc.rr.com
하와이	회장 자기회장	김용수(수학 75) 808-394-2369 ykim@hawaii.edu
하들랜드	회장 무회장	구명순(간호대 66) 913-268-0228 chungmn@yahoo.com 이상진(의대 70) 918-667-1115 gis-360-9178 wanjunada@gmail.com
휴스턴	회장 자기회장	이호선(공대 72) 281-877-6584 hlee@eagle.org
캐나다 밴쿠버	회장 무회장	김홍자(음대 62) 778-355-6659 honjakim@shaw.ca 조석기(상대 71) 604-688-4039 서명희(미대 71) 778-322-7732
캐나다 앨버타	회장 무회장	조용희(자연 82) 403-820-8261 delhousied@hotmail.com

미주동창회 조직과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1대 회장단 및 임원

역대 회장

박윤호(문)·강수준(사)·이병준(상)·오민석(법)·이용환(공)·오호조(지)·이정택(공)·이진구(농)

영예회장: 송순영(문)

제11대 회장: 김은종(상)

자기 회장: 오민환(문)

관악후원회 부회장: 노영호(공)

징병부 임원

사무총장: 성무경(상)
총무국장: 박복지(문)
재무국장: 강석현(상)
사업국장: 이광희(문)
생외국장: 이상대(농)
간 사: 김경원(법)·박정원(농)
기금모금위원장: 이종도(공대)
IT개발위원장: 김영연(공대)

회보 임원

발 행 인: 김은종(상)
상고문: 박석준(상)·김건진(문)
편집위원: 지민우(상)
편집주간: 이기훈
편집위원: 조홍준(의)·박양준(문)·김재원(의)·나철상(문)·이종도(공)·김지영(시)·김성수(문)·이영민(문)·김홍희(인문)

논설위원

김일환(의)·김기태(의)·조종준(의)·최홍환(의)·박순(WA,DC)·윤희원(의)·이형광(의)·정홍택(의)·윤상래(의)·김창수(NY)·임승재(SF)·정석재(의)·이석구(NY)·정요진(LA)

회칙위원회

위원장: 서준민(공·PA)
원 인: 한재원(의)·IL)·이민연(법)·TX)·윤상래(수학)·NE)·김지영(사)·LA)·선용남(의)·NY)·함은선(문)·WA)

사진·취재·기사작성·편집·디자인은 이기훈 편집주간 snuausaik@gmail.com
*인쇄: China Times Printing, INC.
445 Madras St., San Gabriel, CA. 91776
Tel 626-308-2037



모교 소식 '빌 게이츠 서울대 특집'

“한국은 더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한계에 도전해야”

“한국은 더 이상 ‘팔로어(추격자)’가 아닙니다. 누구도 시도가 없는 한계(frontiers)에 도전해야 합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78)가 지난 4월 21일 서울대 관악구 서울대 근대 빌딩으로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강연에서 “한국 기업·기관들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의 혁신 도약을 따라가는 건 불가능하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며 “노력과 헌신에 비해, 혁신도 상상할 수 없는 분야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한계에 도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20일 2월 3일 일정으로 열린 강연에서는 이날 2013년 서울대 혁신을 대상으로 ‘도전 정신과 학식’을 주제로 대담 진행했다.

이날 강연은 빌 게이츠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이후 일 서울대 공대학堂的 사외로 진행됐다.

빌 게이츠는 음성인식, 스마트 기기, 웹, 클라우드, 로봇 등을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해결책을 개발할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데서 혁신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의 수레를 밀고자 하는 것은 역설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술혁신’에 따른 새로운 일반인이든 부유층이든 모든 사람이 ‘공격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혁신의 수레를 추진해 노력해야 한다’고 자신을 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광범위하게 공부하라고

조언했다. 빌 게이츠는 “젊은 사람들은 세상을 현재의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창의적’이라면서 ‘한 가지 분야가 아닌 과학·물리·생물·수학 등의 다양한 분야들을 두루 섭렵할 때 창의성이 나온다’고 역설했다.

또 “어떤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할지 끈질기게 공부해야 한다”며 “일본만 한 곳에서도 각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보고 1년에 3~4번씩 방문한다”고 말했다.

혁신적인 인력과 기술의 융합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끊임없는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라”며 “나도 학교에서 나온 뒤 인터넷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4000여개의 교육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웹사이트인 ‘칸 아카데미’의 열렬한 팬이기도 하다.

이날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기 위해 하버드 법학과를 중퇴한 뒤 창립한 경험담을 고백하기도 했다.

그는 “바스일 캠퍼스(IC)의 가능성을 먼저 엿보다”며 “폴 앨런(MS의 공동 설립자)과 PC의 보급이 시작된 시대의 흐름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대학 중보’를 선택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대학중보를 추진하지는 않았다”며 “창업을 위한 대학 중보라는 게 성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 여겨지는 것보다 정말 예외적인 사례로 인식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회사를 창업하면서 혁신을 이루게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이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강연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된 배경도 소개했다.

그는 “컴퓨터 운영체제(OS)가 도스(DOS)에서 윈도우(Windows)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줬다. 이 때문에 불만, 한지, 뭐가 좋은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었다”며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서 혁신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고, 발상의 전환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모교 측은 이날 빌 게이츠 강연을 앞둔 학생들의 신청을 미리 받아 우편을 통해 300명의 참석자를 선정했다.

빌 게이츠는 이날 오후 2시쯤 김은하 스타벅스 차장에게 배타권을 매지 않을 때의 경험을 얻은 수만 명을 대상으로 강연장을 도착했다.

일부 학생들은 화제에 올라가서 그의 모습을 스마트폰에 담으려고 애썼다. 한쪽에선 “하이 미스터 게이츠”라고 반갑게 인사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빌 게이츠는 이날 22일 청담동에서 열린 모교 방문과 ‘창조 경제’와 ‘원격화’ 분야의 혁신을 논의했다.***

모교도 에드엑스에 합류...

온라인 교육, 총 97개 팀 22

비영리도 운영되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인 에드엑스(EdX)가 최근 2013년 대학을 비롯한 62개 대학과 파트너 대학으로 영입 총 27개의 대학 강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 비해 두 배가 된 것이다.

에드엑스는 하버드와 MIT가 주축이 되어서 시작한 교육사이트로 경쟁사인 열린 기립인 코스라(Cours-era)와 700여개의 대학 제휴 대학이 크게 못지않다.

이전에 에드엑스에 전입한 대학은 모두 아시아권 대학들로 중국과 싱가포르 대학, 페이징 대학들, 미국, 홍콩, 홍콩 과학기술 대학, 일본의 교토 대학, 한국의 서울대도 포함됐다. 에드엑스는 온라인-오프라인 코리드-보스턴 대학, 데이비스 칼리지 등이다. 에드엑스는 대학과 공학 분야를 중심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아이비리그 대학 중 다트머스 칼리지에 대한 대규모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 합류하지 않고 있다.***



모교 여름방학 하계 프로그램 실시

5주간 25개 강좌 영어진행, 언어·문화체험

‘현역의 세계’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올해도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은 미국을 포함한 해외의 다양한 자라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 하계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모교는 현지 실용성과 웹사이트를 통해 하계 프로그램 홍보를 시작한 가운데 미주지역 대학생 유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국제 하계 프로그램이 예전에는 언어 학습과 한국문화 체험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대학과정의 일반 교육과 학점 취득과정을 추가한 대안이 크게 늘어난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한문을 배우고 다양한 문화체험으로 모국언어를 하는 기

회에 미 대학 시니어층도 등록했을 때와 동일한 일익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비공인 각 대학별로 자기가 나진한 학과를 등록하고, 학과와 전공을 등록하면(신청서 접수)까지 합치면 대학 5월 말 안

후로도 알려져 있다. 동문지니의 경우에는 대학마다 등록금의 20% 정도의 할인혜택도 있다고 한다.

▶서울대 국제 하계학교 프로그램은 한국, 해외의 교육기관으로, 한국의 대학, 사립, 예술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명실 공히 중심이 되는 대학이다.

5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국제 하계학교 수강생들은 모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국내외 최고의 교수

회를 가지게 된다. 지난 2007년 시작되어 올해로 7회째 맞는 국제 하계학교(International Summer Institute)는 매년 국제 하계학교(5월 말~7월 말)를 단 한 차례 대학에서 서울대학교에서 머무르며 학업을 취득하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대 교수진과 해외 초빙교수들이 인문사회, 자연과학, 문학, 예술 등 다양한 강의를 제공한다. 강의는 모두 영어로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53명의 교수와 강의하는 25개의 교과목이 개설됐다.

미국,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등 세계 15개국에서 온 335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ISI는 국제적 수준의 강사진, 우수한 교수와 독창성을 겸비한 강사진, 실용,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반으로 하여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또한 지능도가 높아지고 있는 편을 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화학, 물리학, 기존 등 자연과학 분야의 강좌들을 신선했다. 실용수업을 진행했다.

강좌가 진행되는 동안 크고 작은 문화행사로 수시로 개최하는데 가장 인기와 관련된 활동은 바넷(Barnet)과 관련된 음악 프로그램 참여이다. 지난해에 바넷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올해에는 SBS 가요 프로그램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 주한한국문화원, 오월원, 롯데호텔, 야구장 등 국내외를 대상으로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국제 하계학교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

모교 국제협력본부의 김진기 실장은 “국제 하계학교를 통해 세계에서는 국제적 친구들을 통해 한국 문화를의 수업을 신청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말마다 진행되는 문화 행사에 참여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제 하계학교는 이미 지난 5월 25일까지 등록신청을 받았으며 프로그램은 6월 26일(수)부터 7월 30일(화)까지 5주간 진행된다.

국제 하계학교와 홈페이지 <http://isi.snu.ac.kr>

A Tasty Gift From The Sea

Seaweed Snacks are versatile and can be used for a variety of dishes!

대표 이승훈(상대 74)

www.joyline.com | 952-632-7400 | 952-632-7404 | facebook.com/joyline | twitter.com/joyline74 | youtube.com/user/joyline74

“미주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축원합니다!”

Im H. Cho
Financial Consultant
CA Insurance Co. # 0597012

3435 Wilshire Blvd., Suite 25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487-3253 Fax: (213) 487-3254
im.cho@axe-advisors.com

조임현 (간호 72)



Paramount
PLANNING GROUP
a division of AXA Advisors, LLC



• 서울대 동문에게는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대외이사 김재경(82년, 문리대) www.duo.co.kr



좋은사람 만나 결혼해 듀오

믿을 수 있는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결혼' 하면 누구나 듀오를 떠올립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믿을 수 있는 듀오에서 당신의 인연을 만드세요.

♬ 듀오

- 소비자가 인정하는 브라이드 브랜드 : 규모와 인명, 서비스까지 고객이 인정하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 매달 월세 100만 원 : 전월세로 100만 원 있는 커플에게서 소개한 인연을 만듭니다.
- 듀오만의 매칭 프로그램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매칭 프로그램으로 이상향을 찾습니다.
- 한국 회원들 : 한국 회원과의 만남을 통해, 2년 6개월이 넘는 커플 중 가장 많은 신부를 찾습니다.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LA지사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뉴욕지사 2050 Center Ave. Suite 540 Fort Lee, NJ 07024

문의 LA 213-383-0077 / NY 201-242-0505

재미 서울대 여행동아리와 함께하는 한스여행사!

2013년 7차 여행지인 Wondrous Land, Africa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HANS WORLD TRAVEL
7601 Little River Road, Suite 102, Alexandria, VA 22304
Toll Free: 800-363-4267 / 703-658-1177 / 703-658-3119
www.hanstravel.com, Email: hanstravel@juno.com
www.flickr.com/photos/hanstravel 여행사는 밝음

Kenya & Tanzania Classic Safari Tour

7월 28일(일)~ 8월 7일(수), 10박11일
• 여행 경비 \$4920 (미국 출발 국제선 항공비 불포함)
• 전일정 딜럭스 호텔, 인사이드 항공, 식사, 가이드, 차량 포함

Kenya & Tanzania a Post tour Victoria Falls & South Africa

7월 28일(일)~ 8월 12일(일), 15박16일
• 여행 경비 \$7230 (미국 출발 국제선 항공비 불포함)
• 전일정 딜럭스 호텔, 인사이드 항공, 식사, 가이드, 차량 포함

여러분의 7월은 평균 70 도의 가을 기온으로 11월을 가장 여행하기 좋은 시즌이며 또한 동물들의 대 이동이 있어 아프리카의 Big 5 동물, 가장 많은 동물들을 볼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행을 떠날기 아홉도 늦은 시기입니다. 아프리카 사파리 여행의 핵심인 제왕새와 올고로코 국립공원과 마사이마라 국립공원 및 마사이마라 보호구역 등 아프리카의 자연을 가꾸어주는 '반 사바나'의 도시에서 찾아나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한시라도 일, 아프리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월 2007년
지중해 크루즈 여행

3월 2008년
이탈리아 4일 3박 여행

3월 2008년
네팔 12일 여행

4월 2008년
러시아, 몽골 여행

5월 2011년
세인트 피터스버그 여행

5월 2012년
일본여행, 동경 여행

HOPE CONCERT

Maestro Nanse Gum

- Benefit concert to support Music Peace Foundation College Fund -



Friday, August 23, 2013, 8:00pm
The Music Center's Walt Disney Concert Hall



Sarah Yoon Kim (윤혜진)
Music Director & Conductor



Hellen Park
accompanist



Eun Ok Kim
soprano



Sungwan Cho
organist



DOSAN PHILHARMONIC ORCHESTRA · EWHA CHORUS(California & Seoul), UNITED CHOIR

sponsored by KBS America 中央日報 한국일보



MUSIC PEACE FOUNDATION